

감사원, '태양광 비리' 한전 임직원 182명 적발 2

코딩·번역 '척척'... 삼성 가우스, 갤럭시24 탑재 4

## 韓서 만들어 美로 침투 '무역장벽' 뚫는 중소기업

르노코리아 2대 주주 '지리그룹'  
부산서 '폴스타' 생산 美수출 추진  
더블스타도 금호타이어 우회공략  
FTA 무관세·IRA 혜택 등 노려  
무협 '韓기업, 긍정적 요소 크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피해 한국을 우회 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 무역업계는 적극적인 수출 확대를 이어가는 동시에 대미(對美) 전략에 미칠 파장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산 광물 또는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해 달라"고 미국 재무부에 촉구했다. 그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산) 광물 세액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지리그룹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한국산 전기를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나왔다. 폴스타는 9일 "2025년부터 전기 SUV 폴스타4를 한국의 르노 부산공장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리그룹이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인수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린 것이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30%에 가까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전기차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도 일부 누릴 수 있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원료(또는 부재료)를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계 자동차 기업이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셈이다. 이처럼 미국 수출을 겨냥한 중국기업이 한국을 우회 진출로 활용하는 사례

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중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도 한국을 발판 삼아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우회 통로는 일찌감치 타이어부터 시작했다. 2021년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공장의 증설을 추진했다. 3400억 원에 달하는 증설 자금 대부분은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가 조달했다. 이 공장 생산분의 80%는 금호타이어 또는 주문자 상표부착(OEM) 형태로 미국에 수출된다.

상용차 타이어에 주력해온 더블스타는 꾸준히 미국 승용차 타이어 시장 진출을 노려왔다. 다만 30% 수준의 관세에 가로막히자 한국의 금호타이어를 통해 우회 진출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한국산이 아닌, 한국 브랜드(금호타이어)의 베트남 공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미국에서 한국산 타이어는 반덤핑 관세가 약 25%인 반면, 베트남산 타이어는 4% 수준이기 때문이다. 증설 발표 시점을 중심으로 금호타이어의 영업손실은 5년 동안 2500억 원에 달한 상태였다. 해외 투자는 커녕 국내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를 삭감하는 상황에서 3500억 원에 육박하는 해외공장 증설 자금을 댈 여력이 없었다. 결국 베트남 공장의 투자 지분을 틀어쥔 더블스타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100%를 뽑아가고 있다. 금호타이어 공장이지만, 수익은 모두 더블스타가 챙긴 셈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가 간 무역은 실리주의를 최우선으로 앞세워야 한다"며 "우회 진출의 루트가 됐다"는 점보다 우리 수출 기업에 긍정적 요소가 더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엔화 가치, 33년 만에 바닥 뚫나 미국 달러당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 만의 최저치 경신에 근접하면서 일본 정부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3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151.92엔까지 치솟아 엔화 가치가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의 151.94엔에 바짝 다가섰다. 환율이 0.03엔 더 오르면 엔화 가치는 33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게 된다. 스키니치 일본 재무상은 14일 "환율의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계속 만전의 대응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尹 "공매도, 근본적 개선안 만들 때까지 금지"

"미래도시 전환, 기존 법체계 한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안이나 올 때까지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한을 두지 않고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민생 경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관련기사 13면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장기



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어올린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3월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늦었지만,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정부 국정 과제라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에 많은 국민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고 부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새마을금고가 권한이 집중됐던 중앙회장의 힘을 빼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대수술에 들어간다. 다만, 부실 대출로 촉발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와 횡령, 배임 등의 내부 통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관리·감독 개편 논의는 이번 혁신안에서 빠져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4면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인사, 예산, 사업 결정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던 중앙회장의 힘을 대폭 줄인다.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뀐다. 금고 이사장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금고의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도록 하

내년 3월까지 부실금고 신속 합병 모니터링 등 금융당국 권한 강화  
행안부 감독권 개편 논의는 빠져  
기 위해서다.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고,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부실금고 퇴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

기로 했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해 내년 1분기(3월)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수시 모니터링과 감독 권한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행안부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 수립부터 이행, 제재처분 등 검사업무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경영혁신전문위원장은 "그간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쏠려 있었고 이사회가 지역 금고 외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선안을 이행하면 집행부와 이사회 간의 견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하영 기자 haha@

# “가짜농부 행세로 돈벌이”… 비리직원 배불린 태양광 사업

##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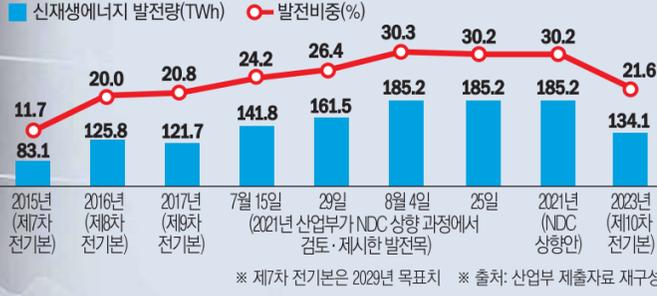
감사원, 한전 임직원 182명 적발  
농업인 증빙서류 위조, 역대 대출  
가족명의로 신고 없이 법인설립  
47명은 징계 이후에도 재운영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직원 A 씨는 공사 규정상 본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계약했다. A 씨는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한 뒤 전력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본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이사 B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브로커에게 의뢰해 농업인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해당 위조 서류로 농업인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 참여해 2년간 약 5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B 씨는 브로커가 “남들 다하는 방법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변화 과정



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농지를 임대해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며 증빙서류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을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 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된 사실이 적발

됐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 등과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전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전은 2017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47명은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재운영하거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인 것

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8개 기관 총 251명이 가족 사업 신고, 검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데도 기관들은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검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쪼개기’ 등 허술한 제도를 틈탄 불법·편법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으로 ‘한국형 FIT’를 한시적(5년)으로 도입하고, 농업인 등은 일반인보다 3배 더 참여(100kW)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농업인 등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 4909명을 점검한 결과, 총 815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격 상실 이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는 등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FIT 참여자 중 발전소 2349개는 가족들이 동일·인근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95%(2240개)는 인위적으로 용량을 분할해 같은 시기에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설치하는 등 우대 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분할 행태 등이 만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동일사업자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 “글로벌OTT 맞설 토종IP 육성”… 1조 규모 ‘K콘텐츠 펀드’ 신설

문체부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  
“세계시장 공략, 킬러 콘텐츠 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3년간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등 영상산업 활력 모색하는 방안이 집중한다.

14일 문체부는 영상산업 및 지식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창작자 권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영상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한다. 극장에 개봉한 영화가 IPTV와 OTT를 거쳐 TV로 넘어가는 기간을 조율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 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IP 보유 제작사가 기존 OTT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비즈니스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도 확장한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 전 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 하! 에어컨 설정온도 1°C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유지하기 **0.41kWh**
- 들!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
- 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0.32kWh**

하루 1kWh, 한달 30kWh 절감 → 한달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 13% 절감

전력 사용량	299 kWh	→	269 kWh
전기요금	58,010 원	→	50,220 원

주) 기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99kWh/월) 기준(출처: 2020년 에너지조사) 주) 전기요금은 한전 사이버점 전기요금계산기(주력용 저압, 기타계절, 전력요금 및 부가세포함)를 통해 산출

#### 일곱가지 더 실천하면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기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전기밥솥 보온시간 ↓	0.06kWh/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하루 1.08kWh, 한달 32.4kWh
시원한 차림으로 쿨맵시 실천하기	하루 0.81kWh, 한달 24.3kWh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하루 0.54kWh, 한달 16.2kWh

# 美 정치권 “보조금 도둑 막아야”... ‘한중 합작사업’ 규제 촉구

## 韓,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중국 주요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우회 진출 전략을 앞세워 속속 한국에 조인트벤처(JV)와 생산 공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치권이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에너지위원인 맨친 의원은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지정과 관련해 최대한 강력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벤처 및 투자 등 형태로 사업 기회를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극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반응은 격양돼 있다. 맨친 의원은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 및 친구

중기업들, 美 현지 합작 막히자 배터리용 원자재 등 韓 9건 투자

맨친 美의원 “적국의 광물 세탁” 대선 코앞 ‘원자재 무기화’ 우려

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IRA를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지 정치권에서는 FTA 체결 국가에서 조립한 전기차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에 엄격한 세부 규정을 도입해왔다. 제네시스GV70 전기차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조립해 판매 중이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썼을 탓에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아직 최종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지역구인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IRA를 비롯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마다 제동을 걸어온 인물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 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를 통해 IRA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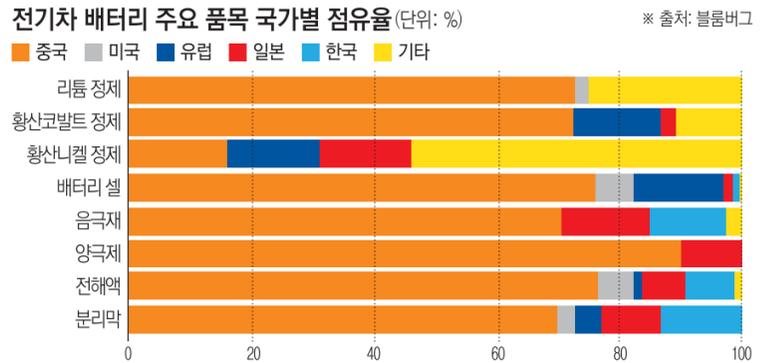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애초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을 시도하다가 강력한 역풍에 직면한 상황이다.

당장 포드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을 잡고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강력한 압박에 돌연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대부분은 중국이 거머쥐고 있다. 배터리 양극재 생산의 74%를 중국이 맡고 있다. 음극재도 92%가 중국산이다. 이밖에 리튬이온 배터리 셀 역시 76%가 중국산이다. 그 때문에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이 이들 원료를 통제해 무기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강문정 기자 kangmj@



조 맨친 미 상원의원



## “반도체 굴기 막을 테면 막아봐” 中 칩 제조장비 수입 90% 급증

3분기 수입규모만 11.5조원 넘어 네덜란드와 거래 1년 전 대비 6배

중국의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미국의 규제 속에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분기 반도체 및 집적회로(IC) 제조장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 급증한 634억 위안(약 11조5122억 원)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6.1배 늘었고, 품목별로는 미세 회로를 새겨 넣을 때 쓰는 노광장비 수입이 3.9배 증가했다.

노광장비는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극자외선(EUV) 등 빛을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비춰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을 때 쓴다. 중국은 글로벌 노광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회사 네덜란드 ASML로부터 이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이처럼 네덜란드로부터 노광장비를 대거 사재기하는 배경에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발맞춰 올해 9월부터 자국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등 일부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줬다.

장비 발주로부터 납품까지는 6개월~1



년이 소요된다. 도카이도쿄증권의 이시노 마사히코 선임 애널리스트는 “중국 기업들이 네덜란드에서 장비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실수요와 무관하게 서둘러 주문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된 장비가 첨단 반도체 제조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8월 출시한 새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에는 중국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SMIC가 개발한 7나노미터(nm·1nm=10억분의 1m)의반도체 칩이 탑재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SMIC의 기술력이 발전해 구세대 라인에서 사용하던 제조장비를 활용해도 첨단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최첨단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노광장비와 준첨단 노광장비 일부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비첨단 노광장비를 추가로 사들이면 SMIC의 7나노 제품의 잠재적 생산능력이 더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의시, 교목 중에서〉

세상에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어느 시인과 그 뜻을 함께했던 어느 기업가처럼요 국민을 아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갑니다



<삼성이 개발한 생성형 AI>

# 말만 하면 코딩·번역 척척... “가우스, 내년 갤럭시S24 첫 투입”

##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사용자-기기 상호작용 극대화 키워드 내놓으면 맞춤형 대담 영어·불어·스페인어 등 지원 개발자·AI 협업해 코딩 가능 폰→가전 기술적용 확대 계획

날짜, 휴가 이유, 일정 등 간략한 키워드 몇 개만을 한국어로 입력하자 ‘휴가로 인해 당분간 자리를 비운다’는 내용의 업무 협조 메일이 우려한 영어 문장으로 작성됐다. 스타일을 바꾸면 문장 형태를 좀 더 부드러운 대화체로 바꿀 수도 있다. 한국어,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3(SDC23 코리아)’을 개최하고, 8일 처음 공개했던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삼성 가우스(Samsung Gauss)’를 직접 시연했다. 삼성 가우스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모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 등 3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언어 모델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생성한다. 삼성전자는



이주형 삼성리서치 상무가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3(SDC23 Korea)’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삼성 가우스(Samsung Gauss)’를 소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k@

사용자가 AI와 간단한 대화를 통해 맞춤형 대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적이 서로 다른 사용자들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삼성 가우스가 이를 자동으로 번역해 각 나라 언어의 유려한 문장으로 작성해 주는 것은 기본이다. 긴 문문을 넣으면 AI가 단어 줄의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 준다. 이 외에도 사용자가 PDF로 된 긴 논문을 올리면 간단한 정리본을 받아볼 수도 있다.

이주형 삼성리서치 상무는 “언어 모델

은 온디바이스를 위한 작은 사이즈부터 클라우드를 위한 큰 사이즈까지 다양하다”며 “한국어,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우스는 높은 ‘한국어 학습 능력’을 갖췄다. 다른 생성형 AI와 달리 가우스는 한국어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을 완료하면서 높은 수준을 구현했다.

코딩 어시스턴트 ‘코드아이’(code.i)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코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삼성 제품에만 최적화했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 완벽하다.

코드아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AI와 대화를 하면서 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다. ‘챗 모드’를 통해서 개발자가 간단한 코멘트나 함수를 넣으면 AI가 이를 분석해 자동으로 코드를 완성해 제공한다. 또 자연어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 특정 코드에 대한 설명과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간 코드 개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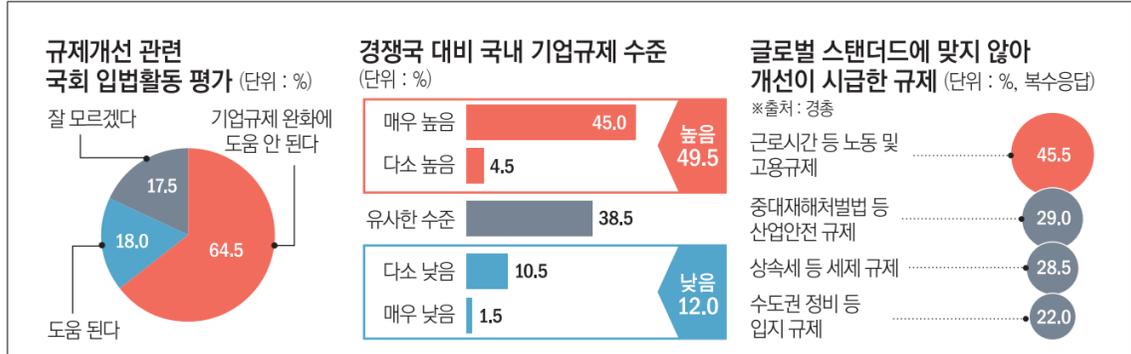
개발자 개인의 역량이 중요했는데, AI를 통해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AI와 공동으로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모델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변환하는데 특화돼 있다. 사용자는 AI를 통해 사진이나 그림 등 창의적인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고 기존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AI가 이를 직접 해석해서 사용자가 상상한 이미지를 손쉽게 그려낸다. 사용자는 생성된 이미지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도 있다.

이 상무는 “삼성 디바이스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 깊이 통합되는 기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가우스를 통해)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가우스는 내년 1월 출시되는 갤럭시S24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가전에도 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업계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 가우스 발표 외에도 △모바일 갤럭시 UI 특징점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술 현황 △삼성전자 OS ‘타이젠(Tizen)’ 발전 방향 등 여러 기술에 관한 세션이 진행됐다. 행사는 15일까지 이어진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전문가 65% “국회입법, 규제완화 도움 안돼”

학계 규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절반가량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로 각각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칼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은 54.5%로, 긍정 응답 45.5%를 웃돌았다. 부정적 평가 이유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부족’,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 간 유기적 연계 미

**경총, 규제혁신 정책 설문**

55% “정부, 계획 부족” 부정적  
50% “경쟁국보다 규제벽 높아”  
46% “근로시간 등 개선 시급”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에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은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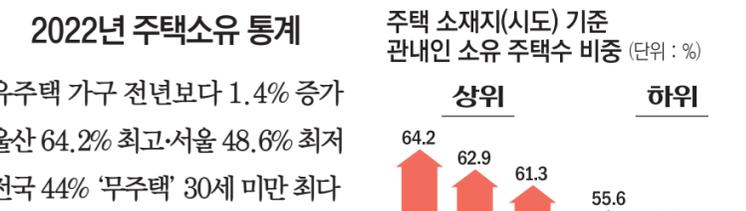
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기업이 손쉽게 빠르게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서울 내집마련 성공률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은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반가구 2177만4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2000가구(56.2%)로 집계됐다. 주택소유 가구 수는 전년보다 1.4% 늘었지만, 주택소유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일반 가구 수가 늘어난 주택소유 가구 수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구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4.2%)이었다. 경남(62.9%)과 전남(61.3%)이 뒤를 이었다.

가구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4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전년보다 0.2%포인트(p) 낮아졌다. 이어 대전(53.0%), 제주(55.6%), 경기(55.9%)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인천 강화군(71.8%)이 전국에서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청도군(70.8%), 전남 강진군(70.4%) 순이었다. 주택소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청년층이 많은 서울 관악구(34.3%)였으며, 부산 기장군(41.7%), 서울 중구(42.0%)가 뒤를 이었다.

**주택 소재지(시도) 기준 관내인 소유 주택수 비중 (단위: %)**

상위 하위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가 70.4%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이 11.2%로 최저였다. 가구원 수별로는 5인 이상 가구가 74.8%, 가구원 구성별로는 3세대 이상인 가구가 79.6%로 가장 높았다.

총주택 1915만6000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전체의 85.8%)로 전년보다 19만 호 늘었다. 개인 소유주택 중 아파트는 1013만4000호(전체의 61.7%)로 21만 호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30만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로 전년(1.08호)보다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81만6000명, 서울 262만9000명, 경남 108만1000명 순으로 주택소유자가 많았다. 주택소유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14.8%), 제주(2.8%), 강원(2.4%) 순이었다.

주택소유자 1530만 명 중 1주택자 비중은 85.1%로 전년 대비 0.2%p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를 의미하는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14.9%로 0.2%p 감소했다. 2021년(-0.7%p)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巨野 몽니에 통과 미지수



제주 4·3평화공원 찾은 인요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4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히 고민

윤재옥 “내달 정기국회서 우선처리”  
野 반발 속 법사위 논의조차 안돼  
정치권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윤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

지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인 임 의원은 “법사위에서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라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해결해야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달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은 완전히 후퇴했다”며 이정식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SPC 그룹의 중대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사망사고의 책임이 SPC에 있다. 아니면 노동자에게 있다”고 이 장관에 따져 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도 야당과 협의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조국·추미애·송영길>

## 조추송·비명·李재판 ‘삼각리스크’ 민주당 “총선 불똥 튕라” 조마조마

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 시사에 당 일각 “尹정부 심판론 약화” 우려  
비명 세력화·李사법 리스크 ‘골머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 (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설·비명 (비이재명)계 세력화·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모두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당을 만들면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면 조 장관도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도모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6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가 라는 질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비법률적 방식’이란 표현은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로 해석됐다.

추 전 장관도 같은 날 서울 금천 출마를 준비 중인 조승형 정치미래연구소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당적이 없는 조 전 장관, 송 전 대표와 달리 추 전 장관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기반인 서울 광진 등 수도권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들의 출마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동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추 전 장관은 상대 진영으로부터 ‘정권교체 공신’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분들”이라며 “정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제일 잘 아는 분들이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총선 출마가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듯하다.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자리지 자신의 명예 회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고질적인 계파갈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약재들이 지속 노출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금융의 모든 순간

### 미국주식 투자, 알람은 끄고

NH농협금융

## 24시간 NH투자증권을 켜자

NH투자증권이 드리는 해외 주식 서비스

- ▶ 해외주식 소수권 거래
- ▶ 해외주식 적립식 서비스
- ▶ 월배당 미국주식
- ▶ 미국주식 공모주 청약

주간거래 오픈

언제까지 알람 맞춰가며 미국주식 하실래요?  
이제 알람은 싹 끄고! NH투자증권만 딱 켜세요!

## NH투자증권에서는 24시간 미국주식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0.25%(미국,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0.0008%(미국주식 기준, 매도시, 1센트 미만일 경우 1센트 부과, 온/오프라인 동일, 국가별 상이발생하며, 기타 수수료/제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24시간 거래]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승인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지원\* 미국 주간거래 미체결 주문은 프리마켓, 정규경, 애프터마켓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간거래 종료 시 취소되며 증거금 해지는 주간거래 장 종료 후 순차적으로 처리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변동이 크거나 또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 \*당일 권리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거래소에서 매매를 제한할 수 있음 \*위 사유 외에도 시세확인 및 주문전송이 정규경 대비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 모빌리티 특화도시 4곳 조성... “UAM·로봇 배송 추진”

## 의성·광명시흥·대구·성남

경상북도 의성군, 광명·시흥시, 대구광역시, 성남시가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에는 특성에 맞는 모빌리티 기술이 도입돼 이동성을 최적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이들 4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14일 발표했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북 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시, 성남시 등 2곳이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란 첨단 모빌리티

미래도시형·혁신 지원형 분류 각각 3.5억·10억 국비 지원

의성엔 자율주행·UAM 운영

대구시 권역 나눠 DRT 등 추진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지원

형으로 진행됐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3:1의 경쟁률,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북 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억5000만원이 지원돼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원(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돼 2년간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된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고려·조선 시대 경북 지역 교통의 요지였던 도리원이 있는 곳이다. 의성군은 도리원을 경북지역의

모빌리티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자율주행에서 도심항공교통(UAM)까지 운영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광명·시흥은 공공주택지구라는 특징에 맞게 15분 내 시민의 이동이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로봇셔틀 및 택시, 물류센터 서비스권역, 특수목적 모빌리티 운행구역 등을 운영한다.

규모가 가장 큰 대구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공유주차장, 도심항공교통(UAM), 로봇물류배송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구도심과 신도시를 모빌리티로 연계한다

는 계획으로 관용 전기 차량을 활용해 주말과 업무시간 외에 카셰어링에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심지영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 사금융 범죄 특별근절 선포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이기간 발생하는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적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적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TF에는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적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 범정부 TF 열어 간담회 과제 논의 세무조사·체납·재산추적 즉시시행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톱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적결 TF에 국세청과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등 참석기관을 확대하고 회의 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물가점검 나선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배추·무 등 김장 재료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네 배 늘린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한 팀 현재 28개소서 100개소까지 확충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100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매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는 시설이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1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시작돼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2차 시범사업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복지부는 2027년 전체 시·군·구 설치를 목표로 재택의료센터를 1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장기요양 1~4등급 인 대상에 5등급, 인지기능등급을 포함하기로 했다. 치매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앞으로는 가정에서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9월 말까지 총 1993명이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했다. 등급별 이용률은 1등급 0.64%, 2등급 0.47% 3등급 0.18%, 4등급 0.14%로, 중증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됐다. 전체 이용자 중 41.6%가 1·2등급자다. 서비스 신청 사유는 만성·통증관리, 노인병 증후군(시·청력감소, 낙상, 섬망 등), 복용약 조절 순이었다. 특히 이용자의 80% 이상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이 가능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로 지속해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다음 달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전기차 ‘배터리 여권’ 만든다... 생산부터 검사 이력 한곳에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 방안

전기차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성능·안전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등의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이 생길 전망이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전주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 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취급·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 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 점검 결과 등을 통합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배터리 3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민테코, 포엔,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제조, 전기차

제작, 배터리 재활용, 유통·물류 분야에 이르는 24개 업체·기관이 참여했다.

업계는 향후 현물·선도 거래 등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용 후 배터리 거래를 보장하되,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모든 거래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업계는 건의문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2030년 세계적으로 1300만 개, 국내에서는 42만 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해외 핵심 광물 확보와 병행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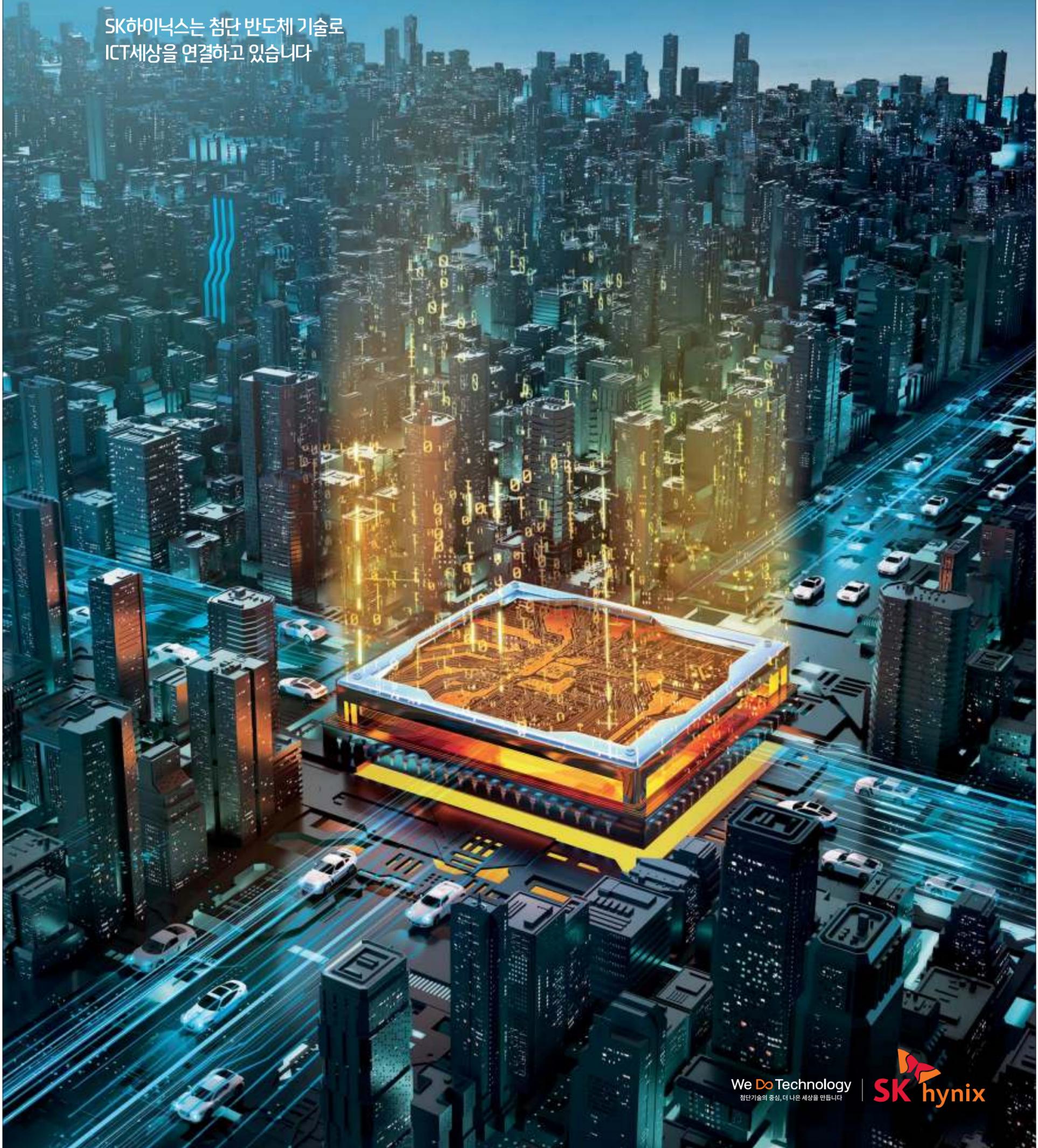
세종=백병립 기자 riby@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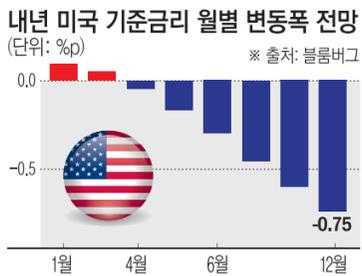
#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 “美 기준금리 내년 2.75%p 인하 전망”... ‘산타렐리’ 오나

UBS·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  
현재 절반 달하는 인하폭 예상  
내년 경기 침체 전망은 엇갈려  
美 개미 절반 “반년간 주가 상승”  
연준 긴축사이클 종료 기대 반영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연말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UBS는 이날 투자자 모에서 연준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총

2.75%포인트(p)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폭의 두 배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파격적인 관측이다. UBS는 이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5.25~5.5%에서 내년 말까지 2.5~2.75%로 떨어지고, 2025년 초에는 최종금리(터미널 레이트)인 1.25%에 도달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누 바워자 UBS 수석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갈 때쯤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실질 금리 수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예측은 미국 경제가 내년 3분기까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또 UBS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10개국 중앙은행이 지난 30년간 진행했던 완화 사이클을 이번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UBS에 따르면 완화 사이클 당시 금리는 15개월 동안 평균 3.20%p씩 인하됐다. UBS는 “이번 금리 사이클을 과거와 다르게 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일본을 제외한 모든 중앙은행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완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도 내년 인플레이션 진정과 경기 둔화 전망에 기반을 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6월로 추정했다. 모건스탠리는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연준이 내년 6월과 9월 금리를 인하하고, 4분기부터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0.25%p씩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금리는 중간값 기준 연 2.375%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UBS와 달리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뿔뿔했다. 미국개인투자자

협회(AAII)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본 낙관적 투자자 비율은 전주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48%를 기록했다. 반면 하락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률은 27%로, 일주일 새 반 토막 났다. 개인투자자 심리지표인 볼-베어 스프레드는 41포인트 오르면서 전주 대비 상승 폭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마이클 하트넷뱅크오브아메리카(BoA) 수석투자전략가는 “국채 금리 하락 기대감을 배경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주식시장에 퍼져있던 경계감이 연말 강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시진핑, 고위관리 41명 ‘역대급 숙청’ 조준

중국 사정당국, 뇌물 수수 혐의 조사  
시진핑 3연임에도 권력위협 싹 잘라  
퇴직자가 절반... “은퇴는 방패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혐의로 고위 관료를 몰아 사상 최대 규모로 숙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을 확정하는 지도자로 등극했으나 여전히 권력 위협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올해 1월부터 이달 8일까지 고위 관리 41명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의 집권 초기로 반부패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2014년과 같다. 현재 조사 중인 장관급 2명은 포함되지 않아 올해는 2012년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가장 대규모로 고위 관료를 축출할 것

이 확실시된다. 이는 시 주석이 취임과 동시에 시작한 반부패 운동 강도가 올해 한층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블룸버그는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1인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시행한 1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주민의 거리 시위로 인해 해제한 데 이어 그 후에는 1년여간 지속적인 경기 둔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올해 강도 높은 반부패 운동은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고위 관리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자국 내 불만을 고조시킬 위험을 의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닐 토머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은 이념적 순수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도를 개선하고,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면서 “지속적인 경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전제 조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지 외에 퇴직 고위 관리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 최소 17명의 퇴직 고위 간부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시 주석 집권 기간 중 가장 많다. 가령 올해 은퇴한 선전시의 한 교통부 고위 공무원은 손자가 부를 과시해 온라인에서 공분을 일으킨 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지난달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은퇴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부패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10년간의 반부패 운동과 처벌에도 뇌물수수 등 부패 문제가 지속함에 따라 당이 스스로 외부의 견제와 균형 없이 정경유착을 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은 2015년 “반부패 운동은 외과의사가 자신의 몸을 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진영 기자 mint@



## 이스라엘, 하마스 의사당 점령... “하마스, 가자 남부 도주”

바이든 “병원 보호...공습 자제를”  
네타냐후 “완전한 승리까지 전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의사당까지 점령하고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류에도 끝까지 가겠다고 천명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며 “그들은 남쪽으로 도주 중”이라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군은 모든 곳에서 전진하고 있고 하마스에는 이를 막을 힘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마스가 도망친 후 민간인들이 하마스 기지를 약탈하고 있다”며 “이는 이들이 하마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은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이스라엘군 골라니 여단 병사들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 의사당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마이클 밀슈테인 엑스(X) 캡처  
란티시 병원을 급습했고 병원 지하에서 하마스 지휘통제센터와 자살폭탄 조끼, 수류탄, AK-47 돌격소총, 폭발 장치, RPG, 컴퓨터, 현금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병원에선 우리 군에 총격을 가하는 무장괴한 집단을 사살했다”며 “또 하루 동안 공습으로 다수의 하마스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의사당을 점령한 것으로 보

이는 사진이 확산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골라니 여단 소속 병사들이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연구 포럼 대표인 마이클 밀슈테인 텔아비브대 교수는 엑스(X)를 통해 “의사당 점령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항하는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이라고 평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에 공습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자지구 병원은 보호돼야 한다”며 “병원과 관련한 침해 행위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지구 인근에 주둔 중인 정찰 대대를 찾아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그저 야만인”이라며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린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북러 ‘밀월’...평양 도착한 러 자원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왼쪽)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14일 북한 평양에 도착해 영접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탄약과 기타 군수품 지원이 절실해 밀월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코즐로프 장관은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영접을 전담했으며 “나진항과 하산역을 잇는 철도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양/AFP연합뉴스

## 석유메이저 엑손모빌, 리튬 사업 뛰어든다

“연 100만대 전기차용 리튬 생산”  
미국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리튬 생산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엑손모빌은 5월 아칸소 남부 스맥 오버에 있는 토지 12만 에이커(약 485.6 km<sup>2</sup>)를 매입했다. 이 지역 퇴적층에는 400만 톤(t)의 탄산리튬이 매장돼 있어 5000만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손모빌은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시추

방법을 활용해 지하 1만 피트(약 3km)의 저수지에서 염수를 추출해 탄소 배출이 적은 리튬직접추출(DLE) 기술로 리튬을 분리할 예정이다. 또 엑손모빌은 2027년까지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정제 리튬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제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의 리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 엑손모빌은 내연차 수요가 2025년 정점을 찍은 후 2050년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2030년까지는 전기차 판매량이 25% 증가하고 리튬 수요는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이현 기자 cahyun@

# 英경제사절단 꾸리는 한경협... “친환경·방산 세일즈”

##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 첨단산업·신성장 분야 선별해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나서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협력모델 한화에어로 방산부문 수주전 등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기대감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양국간 경제 협력을 도모한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차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25일까지 영국 경제사절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았다. 현재 국민방문의주요의제 중 하나인 '민간 경제 협력 강화'를 고려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분야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한경협은 런던에서 영국 기업통상부(Department of Business & Trade)와 첨단산업·신성장 분야 협력 강화,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포럼 현장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진행한다.

재계는 주요 기업 총수들의 동행 여부

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경제사절단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친환경차 부문 등에서 현대차, 한화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영국에서 친환경차를 2만2821대 판매하며 단숨에 업계 4위에 올랐다. 2021년 1만4505대였던 친환경차 판매량은 2년 만에 57.3% 급증했다.

영국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및 친환경차 분야 협력 모델 발굴이 예상된다.

앞서 영국 정부는 9월 2030년 예정이던 '완전한 전기차 전환' 시점을 2035년으로 연기했다. 급하게 전기차 전환 목표를 내세우면서 여러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E-pit) 등 그동안 전기차와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며 얻은 현대차의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화의 방산 부문도 관심을 끄는 분야다. 영국은 주력 자주포인 AS90을 대체할 차기 자주포 획득사업(Mobile Fires Platform)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획득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방산업체들과 '팀 썬더'(Team Thunder)를 결

성해 현지 특화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2는 이번 MFP사업 수주에 나선 자주포 모델 중 유일한 캐드식 자주포로 현지 야외에서 실전 검증을 마쳤다. 영국군은 최신형 장갑차 에이잭스(Ajax)가 테스트 과정에서 잇단 고장으로 속을 썩인 탓에 최신 기술이라도 실전 배치 경험이 떨어지는 모델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경제사절단 동행이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영국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강문정 기자 kangmj@

## 전기차 시장 둔화? ... 현대차는 전동화 속도전

### SK온·LG엔솔 배터리 생산 축소 현대차 美법인 생산직 임금 인상 울산 EV전용 신공장 등 정반대

국내외 배터리 기업, 완성차 기업이 수요가 둔화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임금 인상,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등으로 전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의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는 전기차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생산을 축소하고 일부 직원은 휴직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SK온은 미국 포드와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개발의 켄터키 2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2026년보다 연기하기로 했다. 포드가 120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히며 생산 시기가 미뤄졌다.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속도를 내던 SK온의 미국 현지화 전략이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SK온 측은 “최근 전기차 업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배터리, 완성차 기업들도 상황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울산 EV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스사

은 비슷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으로 건설 중인 테네시주 2공장의 가동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연기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미국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합작해 튀르키예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당시 3사는 관련 업무협약(MOU)을 철회한다고 발표하며 “현재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할 때 튀르키예에 건설

예정이던 배터리셀 생산시설 투자를 지속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러 글로벌 기업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며 전동화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현대차는 전동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먼저 현대차 미국법인은 13일(현지시간) 앨라배마 공장 등의 생산직 임금을 내년엔 14% 높이는 등 2028년까지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미자동차노조(UAW)가 GM, 포드, 스텐란티스와 ‘4년 간 25%’ 임금 인상에 합의한 것과 같은 인상 폭이다. 이 결정에 따라 향후 조지아주에 들어설 전기차(EV)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직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사 근로자의 UAW 가입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또한 현대차는 13일 울산공장에 EV 전용 신공장 기공식도 개최했다.

기공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큰 틀에서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생각”이라며 투자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민재 기자 2mj@ 김민서 기자 viajeorlune@



‘제3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현대차기아 SDV본부와 포티투닷을 총괄하는 송창현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 현대차그룹 ‘HMG 개발자 컨퍼런스’ 성료

### SDV 미래 비전·방향성 제시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대 모빌리티 분야 개발자 축제인 ‘제3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HMG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 현장에 외부 IT 개발자, 대학생, 투자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HMG 개발자 컨퍼런스’는 SDV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외부에 공유하고 소프트웨어(SW)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SDV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기아, 포티투닷,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모, 현대캐피코, 현대트랜시스, 현대엔지비, 모셔널 등 총 9개사가 참여했다.

HMG 개발자 컨퍼런스는 현대차기아 SDV본부와 포티투닷을 총괄하는 송창현 사장의 오픈 키노트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송 사장은 “SDV란 소프트웨어로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물론 편의기능, 안전기능, 그리고 차량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93주년 CJ 대한통운...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

CJ대한통운이 창립 93주년을 맞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5일 창립 93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 신사옥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40년 장기근속자 2명을 포함한 354명의 장기근속자와 우수 성과를 보인 CJL 어워즈 개인과 조직 19개가 수상했다.

강신호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치열함과 응집력, 역동성의 조직문화”를 강조하면서 “월드 클래스 기술로 글로벌 물류 시장을 선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CJ대한통운 통합법인으로 출발한 지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물류 헤리티지를 이어 나가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오리온 패션(ONLYONE



CJ대한통운 9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강신호(앞줄 왼쪽 다섯 번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강병규(여섯 번째) 글로벌사업부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CJ대한통운

PASSION) 2025’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실현한 첫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CJ대한통운은 TES(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시스템&솔루션)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이민재 기자 2mj@

## 한화오션, 세계 최대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수주

### 그리스 나프토마사 6562억 규모 “최고 품질 친환경선박 시장 선도”

한화오션이 그리스 나프토마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6562억 원에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오션이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선박들은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7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한화오션이 수주한 선박은 9만 3000㎡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주된 암모니아 운반선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최근 선주들이 대형 선박 건조를 원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 초

대형 선박을 계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한화오션은 선박 추진 측에 모터를 연결해 발전하면 연료를 절감 가능한 촉발 전기 모터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스마트 십 플랫폼인 ‘HS4’를 탑재할 예정이다.

선박들은 액화석유가스(LPG)로 추진되지만, 향후 선주 측이 원할 경우 암모니아 추진으로 전환도 가능하도록 계약했다. 그리스 나프토마는 LPG 및 암모니아를 전 세계에 전문으로 운송하는 해운회사다. 한화오션과는 이번 암모니아 운반선 4척 계약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친환경·디지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美 판매 부진 지누스, 4분기째 '회청'... 매출 채널 다각화

## 주력시장 부진 만회 안간힘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8000억 원을 들여 품에 안은 지누스가 4개 분기 연속 성장했다. 지누스의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의 계속된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누스는 유럽과 호주 등 다른 지역의 성장세와 한국 내 영업활동 강화 등으로 실적 반등에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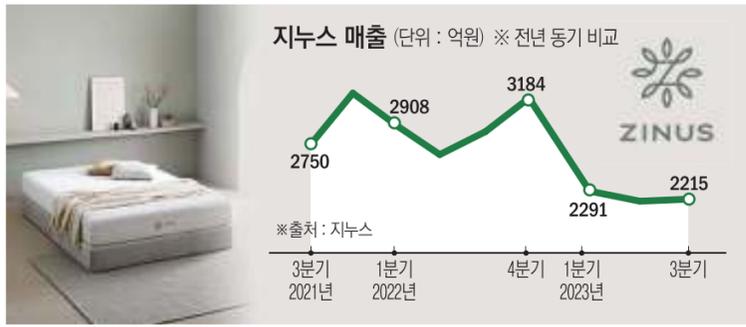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누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221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862억 원 대비 22.6% 빠진 수치다. 이 기간 영업이익 역시 10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70% 넘게 줄었다.

이로써 지누스의 매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2년 4분기 318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231억 원) 대비 1.45% 감소했고, 올해 1분기(2291억 원)에는 전년 동기(2908억 원)보다

미국 시장 연간 매출 80% 차지 3분기 美 매출 1778억... 27%↓ 韓 매출 9%↑, 호주·EU도 늘어 日 등 신흥시장 성장확대 나서

21.2% 줄었다. 2분기 매출(2195억 원)도 1년 전(2642억 원) 대비 16.91% 뒷걸음쳤다. 특히 올해 3분기엔 역성장세 속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누스의 실적이 맥없이 빠지는 이유는 주력 시장인 북미 시장(미국, 캐나다) 부진의 영향이 크다. 실제 3분기 미국 매출은 177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435억 원) 대비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도 71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17% 줄었다.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지누스가 '핵심 인큐베이팅 국가'로 분류했던 지역의 매출이 10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축소된 것도 전체 실적을 끌어내리는 데 한몫을 했다.



지누스 측은 소비심리 악화로 캐나다 시장이 역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베트남 시장도 사업을 재정비한 탓에 매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은 주요 고객사의 발주 감소가 지속됐다.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공급망 차질 등으로 미국 내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중에도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점쳤던 지누스는 올해 3분기까지도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지누스 사업의 핵심 키워드다. 연간 매출의 80% 이상이 이곳에

서 나온다. 미국이 흔들리면 지누스의 실적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에도 미국 시장 매출은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8월 아마존의 대표 할인 행사인 '프라임 데이'에 참가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미국 내 전반적인 수요 부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호주·EU 등 다른 지역이 성장세를 키우고 있는 점이다. 3분기 한국 지역 매출은 103억 원으로 전

년 동기(94억 원) 대비 9% 가까이 성장했다. 2분기 108억 원의 매출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가 54%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장세다. 호주는 66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EU 시장은 91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몸집을 키웠다.

또 미국의 매출 감소가 지누스의 핵심 제품인 매트리스보다는 침실가구와 기타 가구 부문에서 컸다는 점도 향후 반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미국의 매트리스 부문 매출은 1분기 25% 넘게 가라앉았지만 2분기엔 0.3%, 3분기엔 5.1% 성장했다.

지누스는 국내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매출채널을 다각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매출 확대와 체험형 마케팅 이벤트 및 팝업 쇼룸 등을 조성하며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누스는 호주, 일본 등 신흥 글로벌 시장의 올해 매출 목표를 2100억 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비맥스, 마침내

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 영광을

약사님과

고객님께

**비맥스**

대통령상 KOREA BRAND AWARDS 2023-2024

2023년 24회 / 주: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산업정책연구원 / 허가: (제조사 또는 제조 의뢰자) / (유)한용제약 / (주)비맥스 / (주)녹색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 해성옵틱스, 사업 개편·공정 내재화

### 수익성 개선... 3Q 영업익 흑자 전환

카메라 액츄에이터(구동장치) 제조기업 해성옵틱스가 주력 사업 위주로 사업을 개편하고 공정을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새로 개발 중인 차세대 액츄에이터의 개발도 내년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성옵틱스가 지난해보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것은 공정 내재화로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해성옵틱스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액츄에이터 서비스공정을 외주로 진행했었지만, 올해 공정을 내재화했다"라며 "2~4분기 이익이 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해성옵틱스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2013년 코스닥에 상장한 해성옵틱스는 스마트폰용 액츄에이터 및 카메라모듈을 생산해 온 전문기업으로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기다. 삼성전기를 거쳐 삼성전자, 샤오미, 오포, 비보, 구글 등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카메라 OIS 액츄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액츄에이터를 중심으로 카메라모듈과 렌즈모듈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력 사업 외에 수익성이 악화하며 2021년 9월 렌즈모듈 사업과 카메라모듈 사업의 중단을 결정했다.

주력인 액츄에이터는 모터를 통해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초점(AF)과 흔들림(OIS)을 보정하는 구동장치다.

최근 차세대 제품인 버티컬(수직) 타입을 개발 완료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폴디드(가로) 타입을 개발 중으로 내년 초 개발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지리정보(GIS), 위치기반(LBS) 자체 솔루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지오소프트 지분 투자를 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지오소프트는 일본에서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전기 선박 충전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의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3차원(3D) 맵핑 관련 기술을 보유해 휴맥스와 공동사업으로 실내 전기충전소, 주차장 안내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 팅크웨어, 누적영업익 450% 증가... 사상 최대

팅크웨어가 로보틱 등 생활가전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팅크웨어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29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누적 영업이익은 259억 원으로 448.6% 성장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3분기 매출액은 1060억8000만 원으로 2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1000억 원을 넘겼다. 영업이익은 119억5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2%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8.9%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보다 7%포인트(p) 개선돼 질적 성장을 기록했다.

로봇청소기 '로보락'으로 대표되는 환경생활가전 부문은 누적 매출액 1340억 3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3.2% 증가하며 호실적을 이끌었다. 3분기에만 60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올해 듀얼레이더탑재 제품 등 기능이 강화된 하이엔드급 블랙박스 신제품과 아이나비 커넥티드 구독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수익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대한민국의 미래, 신한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것

아이를 키우는 행복과  
안정된 노후의 든든함까지

가족의 행복이 쌓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

가족의 행복을 키우기 위한  
**최고 연 9.0% 적금 출시**  
기본 연 3.0% (23.11.10 현재, 세전, 만기일시지급식)

[행복 육아 우대] 가입기간 중 결혼/ 임신(난임)/ 출산/  
2자녀(05년 이후 출생) 이상의 가구  
[든든 노후 우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더 알아보기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최고 연 9.0%~기본연 3.0%** (23.11.10 현재, 세전, 만기일시지급식) **적금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키우세요**

(패밀리 상생 적금) ■ 기본이자율: 연 3%, 최고이자율: 연 9%(2023.11.10 현재, 세전,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기간: 12개월 ■ 가입금액: 1천원 이상~월 50만원 이하 ■ 우대금리 조건: 우대요건 충족 시 최고 연 6.0%의 우대이자율 제공  
①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출산, 05년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 3.0% ②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 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 시 연 2.0%  
③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첫 신규 또는 입출금 통장 중 거래중지 계좌만을 보유한 경우 연 1.0% ■ 만기 전 해지 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선착순 5만명 가입가능 상품으로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안내없이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5229-1호(2023.11.13~2025.11.12)

# 역대급 규모·플랫폼 다변화... K게임 ‘새바람’ 일으킨다

### ‘지스타 2023’ 내일 개막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3’이 역대 최대 규모로 16일 개막한다. 지난해 보다 300여 개 늘어난 3250개 부스로 이뤄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신규 지식재산(IP), 그 중에서도 특히 다중접속 역할게임(MMOPRG) 일본에서도 탈피한 콘솔·서브컬처 장르의 라인업이 관전 포인트다. K-게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8년 만에 지스타 B2C(기업-소비자 거래) 관에 참가한다. 총 200부스 규모의 B2C관을 꾸려 ‘LLL’과 ‘배틀크러쉬’, ‘프로젝트 BSS’, ‘쓰론엔리버티(TL)’, ‘프로젝트G’, ‘프로젝트M’, ‘퍼즈업 아미토이’ 등 총 7종의 게임을 출품한다.

스마일게이트는 9년 만에 지스타에 출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대표적인 ‘로스트아크’의 모바일 버전을 이번 지스타서 최초로 공개한다. PC 온라인 게임 원작인 로스트아크의 게임성을 고스란히 모바일화한 만큼 흥행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250개 부스... 300여개 늘어

엔씨·스마일게이트·웹젠 복귀 ‘TL’ ‘배틀크러쉬’ 등 신작 출격

콘솔·PC 등으로 플랫폼 넓히고 서브컬처 라인업 늘려 변화 시도

이 쏠린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작들은 ‘리니지아 이크’(리니지와 비슷한 게임)에서 벗어나 콘솔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리니지아 이크의 모바일 게임들이 대거 출시되자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콘솔·PC 등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리니지M’을 포함해 모바일 MMORPG에 주력하던 엔씨소프트는 신작 배틀크러쉬를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으로 시연할 계획이다. PC와 콘솔 버전으로 출시되는 TL도 선보이고,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게임성을 점검한다. 넷마블은 모바일·PC·콘솔 크로스플

### ‘지스타 2023’ 관전 포인트

부스	역대급 규모. 지난해 대비 10% 늘어난 3250부스(BTC관 2386부스, BTB관 864부스)
게임사	엔씨소프트 8년, 스마일게이트 9년, 웹젠 7년 만에 BTC관 참가
플랫폼	모바일 게임에서 벗어나 콘솔, PC로 확장 엔씨소프트 TL·배틀크러쉬, 넷마블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등 시연
서브컬처	지스타사무국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 마련 웹젠 ‘테르비스’,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라그나롤’ 3종 공개 넷마블 ‘데미스 리본’,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공개
블록체인	2년 연속 후원 위메이드 “이번 지스타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 현주소 국내에도 적극 알릴 것”
게임대상	유력 후보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넥스 ‘데이브 더 다이버’ 네오위즈 ‘P의 거짓’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대상 시상



레이로 출시할 예정인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의 콘솔 체험을 위해 시연대에서 PC와 게임패드를 지원한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서브컬처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스타 사무국은 올해 처음으로 서브컬처 팬을 위해 ‘서브컬처 게임 페스티벌’을 마련하기도 했다. 7년 만에 B2C관을 여는 웹젠은 서브컬처에 힘을 준다. 자회사 ‘웹젠노바’가 개발 중인 신작 ‘테르비스’를 비롯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라그나롤’ 등 서브컬처 게임 3종을 선보인다.

넷마블도 이번 지스타에서 공개하는

IP 3종 중 2종을 서브컬처 위주의 작품으로 구성했다. 3D 카툰 렌더링을 적용한 ‘그랜드크로스’ IP 기반 서브컬처 게임 ‘데미스리본’, 일본 만화 원작의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을 공개한다.

2년 연속 지스타의 메인 후원을 맡고 있는 위메이드는 올해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강조한다. 행사 이튿날인 17일 오전 10시에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G-CON 2023’ 기조연설 연사로 참여해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장현국대표는 “급격하게 성장 중인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현주소를 국내에

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2년 연속 메인 스폰서 참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스타를 통해 블록체인 파이오니어 위메이드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스타 개막 하루 앞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대상(대통령상) 유력 후보로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넥스의 ‘데이브 더 다이버’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을 점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게임대상 시상식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열기를 더한다. 업계가 최근 실적 부진 등 난관에 봉착한 만큼 정부의 관심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문체부 일정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게임대상 시상식에만 참석하고, 지스타 개막식은 전병국 1차관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스타는 역대 규모로 열리기도 하고, 게임 대상도 역대급으로 치열해서 업계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했다. 모두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 과기부 “대가검증협 이번주 가동”... ‘송출 수수료 갈등’ 해법 찾을까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이 송출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대홈쇼핑이 예고한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의 협상 태도가 불분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대가검증협 의체가 한 달 가까이 가동되지 못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대가검증협의체가 현재까지 위원 구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검증협의체) 위원 구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번 주에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유료방송사업자

협상 결렬 땀 20일 송출 중단 현대홈쇼핑 “변경 계획 없어”

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는 기구다. 협상 중 사업자들이 자료를 성실이 제공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등 수수료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살핀다. 대가검증협의체의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을 해 3월부터 송출 수수료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사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

하자 현대홈쇼핑은 지난 9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0일에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하겠다고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지난달 13일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요청했다.

이후 양측은 과기정통부 중재 요청에 따라 추가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19일 한 달 뒤인 이달 20일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재공기했다.

그 사이 협의체는 가동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출당

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다시 입장을 바꿔 협의체 가동을 요청해 가동 준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으로서 시청자와 중소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 이번 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실상 오는 20일 방송 송출은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현대홈쇼핑에 송출 중단 절차 중지를 권고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홈쇼핑에서 정해놓은 송출 중단 예정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 대가검증협의체 협의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홈쇼핑은 “현재

### 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주요 일지

9월 19일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일 10월 20일로 예고
10월 13일	KT스카이라이프, 대가검증협의체 가동 요청
10월 19일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일 11월 20일로 재안내
10월 20일	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 측에 송출 중단 절차 중지 권고
현재	과기정통부, 대가검증협의체 위원 구성 및 가동 준비

까지 송출 중단 일정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양사의 송출 수수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LG유플러스와 NS홈쇼핑은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대가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으나, 이후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관련 요청을 철회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페이코인 발행사>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국내 사업 ‘재시동’

박사, 거래지원 종료 7개월 만에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연내 VASP 신고 수리는 힘들 듯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실명계좌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라는 범위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받았다.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페이코인 월렛 서비스(페이코인 발행 제외)의 범위로 ISMS 인증을 받았다.

KISA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에서 받은 예비인증 인증서는 이달 1일에

발급된 인증서”라며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할 수 없으나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가상자산 지갑 결제 서비스로 제18조2에 따른 예비인증이다”라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특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신고 수리서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는 페이코인 유통구조에

속해있는 다날과 다날 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존 유통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빼는 대신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결제와 매매, 정산까지 모든 사업을 전담하며 매매업자로 신고 수리 시도를 해왔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에게 실명계좌 획득을 변경신고 조건으로 걸었다. 페이프로토콜이 모든 유통구조를 맡고 있는 사업 구조상 자금세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페이프로토콜은 결국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변경신고도 불수리 됐다. 결국 올해 4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박사)로부터 상장폐지 됐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결국 페이코인(PCI)을 활용한 국내 결제 서비스를 종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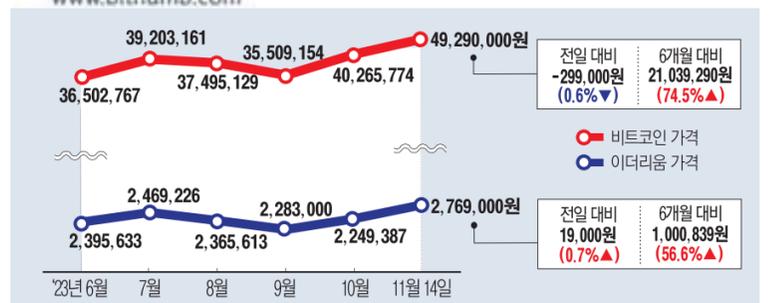
이번 예비인증 획득으로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지 약 7개월만에 국내 사업 행보를 보였지만, 올해 안에 VASP 수리를 받는 것은 어렵다.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취득 후 3개월 내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수리

후에는 2개월간 영업한 후 ISMS 본인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페이프로토콜은 FIU가 앞서 권고했던 매매업자로의 신고가 아닌 기존의 지갑 업자로 VASP 신고에 도전한다. 유효성 기자 yoonheesung@

### bithumb 빚셈

### 빗셈 지수 (2023년 11월 14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20,300	1,900 (0.6% ▲)	이오스	977	-16 (1.6% ▼)
리플	893	13 (1.5% ▲)	트론	144	-4 (2.7% ▼)
솔라나	74,150	-3,950 (5.1% ▼)	스텔라루멘	164	-2 (1.2% ▼)
에이다	494	-12 (2.4% ▼)	비트코인에스비	66,850	50 (0.1% ▲)

###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 ‘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여야 모두 “특별법 연내 통과”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가능성 분당 등 재건축추진위 설명회 사업 추진 가속도, 기대감 커져 평균 7~10년... 집값 등락 영향 전문가 “장밋빛 환상은 금물”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올해 초 발의 이후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국회 내 표류를 거듭했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핵심지인 분당 일대에선 재건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통합 재건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장외에서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14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

법 통과와 불씨를 댕긴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수 있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 열린다. 아직 심의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면서 1기 신도시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의 기대감은 되살아나고 있다. 실제로 1기 신도시 핵심 지역인 분당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는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비업체에 따르면, 분당 한솔마을 1·2·3단지는 18일 통합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곳은 1단지 청구와 2단지 LG, 3단지 한일 아파트로 총 1800여 가구 규모다. 이번 설명회에는 1군 건설사 중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KB부동산신탁도 참석해 신탁방식 재건축과 재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알린다. 한솔마을 1·2·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이곳은 다른 추진단지보다 조금 늦은 3월부터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빠르게 동의를 확보하

고 있다”며 “현재 동의율은 73% 수준이 장거적으로 동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내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덜컾었다”고 했다. 분당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은 다음 달 5일 통합 재건축 설명회를 연다. 앞서 정자동과 금곡동 일대 5개 단지 2860가구 역시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 75%를 달성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남은 절차가 많은 만큼 장밋빛 환상만 갖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사업은 평균 7~10년 이상 걸리는 데다, 집값 등락에 따라 사업성도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내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도가 바뀌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재건축 사업 완주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단지의 호가 등은 일부 오를 수 있겠지만,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못 내면 가격은 다시 내려갈 수 있다”며 “재건축 시장 기대감은 커지겠지만, 내년 총선 이후까지 재건축 훈풍이 이어져야 효과를 낼 수 있고 단발성으로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용욱 기자 dragon@



박경일(왼쪽 두 번째) SK에코플랜트 사장과 이평구(세 번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14일 배터리 재활용 기술시험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SK에코플랜트

## SK에코플랜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끈다

리사이클링 전·후처리 관련 핵심 4대 기술 내재화 성공

SK에코플랜트가 폐배터리 재활용 핵심 4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리튬 회수율 고도화’와 ‘폐수 저감’, ‘화재방지 고속방전’ 등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후처리 전반에 걸친 핵심 기술 내재화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대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선포식’을 열고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성과 및 활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SK에코플랜트와 연구원 폐배터리에서 용매추출 방식을 이용해 추출한 희소금속인 니켈·코발트 회수율이 97%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회수된 니켈·코발트의 순도도 99.9%를 웃돌아 실제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광물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주요 희소금속

중 하나인 리튬 회수율은 90%를 달성했다. 리튬은 배터리 양극재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 중 하나다. SK에코플랜트는 리튬 회수에 통상 사용되는 건식 방식이 아닌 용매추출 공정을 최적화해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산화리튬으로 생산하는 기술까지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SK에코플랜트는 해당 4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확보 기술은 파일럿 공장을 운영해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실증 사업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쳐 2025년 준공이 예상되는 경북 경주 SK에코플랜트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추진 중인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까지 조성된다면 본격적으로 SK에코플랜트의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 역량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얼어붙는 주택경기...사업전망지수 2월 수준 ‘뚝’

수도권 중 서울 나뉘어 가장 커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던 수도권도 부정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제주, 전남, 충남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주택사업자의 경기인식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18.9p 하락한 68.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지수가 60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은 아직 8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하락 폭이 큰 데다 수지도 낮게 나왔다. 수도권 경기전망지수는 102.9에서 83.5로 19.4p 하락했다. 서울이 28.7p

(115.0→86.3)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6.2p(97.2→81.0), 13.2p(96.5→83.3) 낮아졌다.

주산연은 “10월 말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여기에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화 우려로 주담대 제한도 커지는 등의 이유로 주택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보규 기자 jbk@



## 엘비비 골든 까멜리아 로션

All Day Care In Lotion

추위에도 꽃을 피우는 까멜리아의 강인한 생명력과  
항산화 효능을 지닌 강황이 만나 탄생한 골든 까멜리아 로션

100시간 보습 지속 · 피부 탄력 개선 · 민감 피부 적합



LBB 한남동 쇼룸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 55길 45 | 롯데 백화점 본점 1F / 롯데 면세점 본점 9F  
LBB 스파 | 한남동 라 부티크 블루 / 제주 나인브릿지 CC  
02-555-5152 lbbkorea.com @lbb\_cellbeauty

# 검사기능 강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효과는 미시수

**회장 힘빼고 전문경영인 도입**  
전문성 없는 행안부가 말으면서 “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 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 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 “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주요 경영혁신안 내용**

<p><b>▶ 행안부·금감원·예보 등 협의체 구성해 검사기능 강화</b></p>		
	<b>현행</b>	<b>개선</b>
협의체 구성	없음	검사계획 수립·이행 및 제재처분 등 검사업무 전반에 행안부·금감원·예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	제한적 자료 제공, 행안부 및 중앙회 주도의 검사계획 수립	검사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공(의무화), 협의체 통한 검사대상금고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금감원·예보 등은 필요시 협의체 통해 수시검사 요청

<b>▶ 금고 검사 개선안</b>		
	<b>일반 금고</b>	<b>고위험 금고</b>
1팀당 검사원	최소 4명	5~6명
검사 기간	5영업일+α	10영업일+α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대수술에 나섰다.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감독전문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 금융당국의 ‘권한’은 대폭 늘리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새마을금고의 병폐로 지적됐던 제약적 지배구조에 ‘메스’를 댔지만 ‘이중적 권한’ 구조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4일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요청했을 때

만 금감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금감원, 예보 등 관련 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계획수립부터 제재수준 결정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행안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검사 과정에서 (전문성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는 반복되는 횡령사고와 유례없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중앙회장 금품수수 논란까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공제사업의 감독권이 금융당국에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부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유독 새마을금고에서만 각종 사고가 불거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려고 해도 직

접적인 감독권이 없어 제한적인 자료만 받을 수 있었다. 검사계획도 직접 수립을 할 수 없어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협조를 구해야만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에서도 감독권 이관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뱅크런 사태나 내부통제 사태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에서는 감독전문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애썼다고 설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경영혁신안을 만들었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위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도 집중할 예정이다. 고위험 금고에 대한 검사 인력을 늘리고 검사 기간도 확대하는 리스크중심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한다.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외부회계감사도 3000억 원 이상 금고의 경우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따른 건전성 문제가 불거져 뱅크런 사태로 이어지면서 감금이 통제 문제가 지적됐다. 그동안 전체 연체율을 연말에만 공개했고, 1294개 개별 금고에 대한 연체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공시항목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해 강력한 퇴출 메시지를 전달해 관리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가 분기별로 이뤄지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부실우려금고’나 ‘부실금고’를 판단해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 ‘만형’ 삼성생명 역대급 실적... 교보생명도 예상 뛰어넘는 성적

**생보사도 3분기 실적 방긋**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들도 3분기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만형’ 삼성생명은 연결기준 역대급 실적을 내며 자존심을 지켰고 교보생명 역시 새로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은 1조44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7%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1조7965억 원으로 56.5% 늘었다. 누적 매출은 23조3321억 원으로 19.6% 줄었다. 보험사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CSM(계약서 비스마진)은 11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2000여억 원 감소했다.

삼성 누적 순익 1.4조... 72.7% ↑ 보장성 상품 중심 신규계약 호조 교보 6035억... 투자 운용 돋보여

삼성생명은 보장성 상품 중심의 신계약 실적 호조에 따른 보험 서비스 수익 확대의 결과라고 호실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계약 연납보험료(APE)는 3분기 기준 758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7009억 원) 대비 8.2% 늘었다. 보장성 신계약 APE는 3분기 기준 6113억 원으로 전년 동기(4582억 원) 대비 33.4% 증가했다.

삼성생명의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297조1000억 원이다. 자본건전성 지표인 신 지급여력비율(K-ICS)은 215~220%였다.

건강보험 판매를 더욱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종민 삼성생명 CPC 상무는



다. 교보생명은 같은 날 3분기 누적 연결 재무제표 기준 6035억 원(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6029억 원을 기록했다. CSM은 6조4000억 원을 시현했다. 교보 측은 안정적인 보험수지차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부문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률이 두드러졌다. 교보생명은 업계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증가로 투자 손익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누적 6000억 원대 투자손익을 올리며 견조한 투자 운용 성과를 나타냈다.

이 기간 자기자본수익률(ROE)는 6.89%, 운용자산이익률은 4.05%로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성원 기자 jsw@

## ‘LG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신한카드 한정판 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LG트윈스의 202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며 우승 엠블럼이 각인된 한정판 ‘LG트윈스 신한카드’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2900명에 한정해 발급하는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 16년간 LG트윈스의 스폰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LG트윈스와 제휴 관계를 인연으로 이번 특별 이벤트를 열게 됐다.

LG트윈스의 29년 만의 우승을 기념하는 우승 엠블럼이 각인된 한정판 LG트윈스 신한카드를 총 5800명에게 발급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 카드는 이달 16일부터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선착순으로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중단될 수 있다. 제작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고금리 장기화에... 은행 카드대출 연체율 8년來 최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카드 대출의 경우 급전 등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적은 금액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5대 주요 카드사들의 연체 규모와 연체율도 악화하면서 서민경제가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2.9%로 집계됐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 2.0%에서 1년 만에 0.9%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15년 8월의 3.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8월 말 기준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



나 카드대출 연체율보다는 낮았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카드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급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카드 대출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고, 급전이 필요해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상당 비중을 차지해 고금리 장기화로 발생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은행카드뿐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 규모와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 자산 중 한 달 이상 상환이 밀린 연체액은 10월 말 기준 1조56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9% 늘었다.

신한카드에서의 연체액이 5378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56.2%나 증가했다.

## 연체율 2.9%... 서민경제 적신호 5개 카드사 연체액도 65% 늘어

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3220억 원, 2763억 원으로 각각 52.5%와 53.2% 늘었다. 우리카드도 2219억 원, 하나카드는 2063억 원을 기록, 각각 64.6%와 164.5% 불어났다.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이들 5개사의 3분기 평균 연체율은 1.33%로 2분기(1.27%) 대비 상승했다. 하나카드의 연체율이 1.66%로 같은 기간 대비 0.89%p 나 뛰었다.

우리카드 1.36%, 신한카드 1.35%로 각각 0.45%p, 0.49%p 상승했다. 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1.22%, 1.06%를 기록, 0.44%p와 0.40%p씩 연체율이 올랐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값을 연체 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만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법근 기자 nova@



## 홍국생명, 이사회 ESG위원회 출범

홍국생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홍국생명 ESG위원회는 우종필 사외이사(위원장), 임형준(사진 오른쪽 두 번째) 대표, 장상용 사외이사, 조훈 사외이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관련 단기 및 중장기 전략 수립과 현안 관리를 맡을 계획이다. 정성원 기자 jsw@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 품격 있는 인생 그문이 열립니다

삶의 균형은, 삶의 안정감은  
늘 준비하고, 미리 지키는 것  
당신 삶의 품격을 지켜나갈  
준비된 보험을 전합니다

#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시작 삼성 고(高)품격 인생보장보험

###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횟수, 한도, 보험금 감액지급내용, 보장개시일,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등 주요 지급제한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3-1123 (브랜드광고파트, 2023.5.31~2024.5.30)]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4240호 (2023.9.12~2024.9.11)]

# '구주 탈출구' 전략한 IPO... 7월 상장주 전부 '마이너스'

## 파두 '뺑뺑기 상장' 논란 확산

서울 마포에 사는 50대 직장인 A 씨는 요즘 공모주(IPO) 시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지 3개월 만에 충격적인 실적 부진을 알린 파두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A 씨는 "파두 파두" (파도 파도) 낱새가 난다. 파두 한 종목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IPO 기업으로 불똥이 될까 걱정이다"라면서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게 불 보듯 뻔해 청약은 일찌감치 접었다"라고 토로했다.

공모주 시장에 한겨울 한파가 찾아왔다. 파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뺑뺑기 상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파두의 '뺑뺑기 상장' 의혹은 다른 IPO를 준비하거나 새내기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시장에서 고질적인 '뺑뺑기 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관련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두, 개미 등치는 구주 탈출구였나=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두는 전 거래일보다 6.99% 하락한 1만7710원에 마감했다.

파두의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은 것은 믿기 힘든 수준의 실적이 공개되면서다. 올해 매출액 1203억 원, 2024년 371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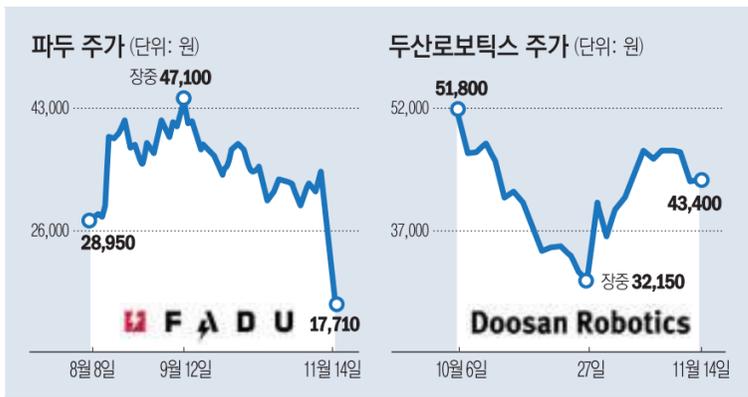
증권신고서에 2분기 실적 빠고 초기투자자 3분기 공시前 매도 에코프로머티리얼 3분기 '적자'

공모주 가격제한폭 확대되자 기준주주들 상장일 처분 빈번

2025년 6195억 원을 제시한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액은 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8% 급감했다. 더 놀라운 것은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날 파두는 "예상을 뛰어넘은 낸드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들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파두 중목토론폰방에서는 '아무리 시장 침체가 심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시가총액 1조 원대 스타트업) 기업의 6개월간 매출이 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파두의 사기성 상장 의혹을 강하게 성토했고 있다.

매출 실적보다 더 큰 문제는 파두가 '5900만 원'짜리 2분기 실적 결과 성적표를 숨기고 상장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7월부터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과 공식 기업설명회(IR) 등이 시작됐지만, 당시 파두는 2



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 (0)라는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되레 파두는 7월 26일 정정된 투자설명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PCIe Gen5 제품이 양산에 돌입해 매출 신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고객사들이 신규 고객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만 강조했다.

개미들이 더 분노하는 점은 상장 전 초기 투자자가 파두의 3분기 실적 공시 직전 이미 팔을 뺐던 사실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포레스트파트너스가 설정한 펀드들은 이달 2~8일 집중적으로 파두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파두가 장 마감 뒤 충격적인 실적을 공시하던 지난 8일에도 장내 매도는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IPO가 구주 탈출구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6월 26일 공모주 가격제한폭이 기존 90~200%에서 60~400%로 확대된 후 상장 첫날 기준주주들은 구주를 팔고 나오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7월에 상장한 기업들은 3개월 보호예수(락업)가 풀리면서 물량이 쏟아져 공모가 대비 모두 두 자릿수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반복된 뺑뺑기 상장 = 테슬라(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사인 카페24.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를 보면 2018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각각 260억 원, 202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영업이익은 155억 원에 282억 원의 순손실이 났다.

2018년 11월 상장한 성장성특례 상장 1호 셀러버리는 당시 주가매출비율(PSR)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며 2018년에 124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장 두 달 만에 확정된 실제 매출은 예측의 3분의 1 수준인 45억 원에 그쳤다.

실적 뺑뺑기 상장 논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날도 상장을 앞둔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는 주주 서한을 통해 "분기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다"라며 "광물 가격 하락, 원자재 재고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올해 3분기 매출 2400억원, 영업손실 69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는 개미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적이다.

IPO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올해 최대어 중 하나인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고, 서울보증보험은 고평가 논란에 상장을 철회했다.

기관들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조금 덜 사더라도 보호예수 기간을 짧게 걸거나, 보호예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도를 잡고 있다. 실제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기관대상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락업을 제시한 참여자는 총 41곳이었다. 락업을 걸지 않은 기관 수는 1037곳에 달했다.

한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금융당국도 파두의 상장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심사 당시 실적을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기자 si2020@

## 공매도 막히자 개미 몰린 이차전지 인버스

하루 평균 매수액 412억→1689억 이차전지주 강세에 개인수급 확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이차전지 업종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로 개미들이 몰려들고 있다. 공매도 금지에 따라 급등한 이차전지 섹터 인버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12일 상장한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의 공매도 금지(6일) 이후 하루 평균 매수액은 16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3일까지만 해도 하루평균 412억 원에 그쳤다.

공매도 금지 후 거래대금도 1조137억

원에 달했다.

수급 주체는 대부분 개인이었다. 6~13일 개인은 해당 ETF를 429억 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405억 원, 외국인은 46억 원 순매도했다.

이차전지주 하락에 따른 수익을 시현할 수 있는 수단인 공매도가 가로막히면서 유사한 상품이면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 급등한 이차전지주의 조정세를 예상한 투자자들의 인버스 ETF 매수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이차전지 섹터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6일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6일 하루에만 22.76% 상승한 것을 비롯해 POSCO홀딩스(19.18%), 에코프

로(29.98%), 에코프로비엠(30%), 엘앤에프(25.30%) 등 대형주들이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이차전지는 가격과 수요 모두 부진이 동시에 발생해 주요 업체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평균 34% 하락했다"며 "전기차가 격 부담과 고금리 환경이 동반된 지속할 전망이므로 수요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튬 가격 하락 전망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수혜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규 기자 pmk8989@

## 흑자전환 한전... 4분기 전망 엇갈려

신한證 "연료비 등 하락 긍정적" 일각선 "에너지 가격 변동성 커"



10개 분기만에 흑자전환한 한국전력을 두고 증권사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4분기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반면, 영업적자를 점치는 곳이 팽팽하게 맞선다.

14일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기존 2만1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력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가운데 전력판매 단가는 24.3% 상승했다"며 "주요 에너지 가격과 계통한계 가격(SMP,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 하락 영향으로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각각 3.19%, 16.5% 줄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SK증권(2만5000원→2만1000원), 키움증권(2만4000원→2만2500원), 현대차증권(2만1000원→2만 원) 등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내렸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간 진행된 자본감소의 영향으로 주당 순자산가치(BPS)가 감소한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차입금을 감안하면 현금흐름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3분기 매출 24조5000억 원, 영업이익 2조 원을 달성하며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2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4분기 실적 전망을 놓고서도 증권

가의 의견은 엇갈린다.

메리츠증권이 1조6638억 원으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가장 높게 제시했고, 신한투자증권(9090억 원), 현대차증권(8900억 원), KB증권(7340억 원), 하나증권(6145억 원), 신영증권(3430억 원) 등이 흑자전환을 점쳤다.

반면, 키움증권(-7920억 원), SK증권(-5880억 원), 이베스트투자증권(-1690억 원) 등은 적자지속을 예상했다.

4분기 실적 걸림돌은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변동성 확대. 국제 유가가 6월을 저점으로 9월까지 단기적으로 반등하면서 후행하는 LNG가격과 SMP가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전력판매량 감소와 기저발전 이용률 하락으로 3분기 대비 비용구조 악화도 우려된다.

사채발행한도 관련 리스크를 두고선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2분기 이후 베이비시프 수준의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함께 사채발행한도 관련 리스크가 점차 경감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전력의 10월 말 기준 사채발행잔액은 약 82조 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금투업계, 13번째 '사랑의 김치 페어' 나눔

65개 금투자·증권 유관기관 동참 김치 5만kg 복지시설 150여곳에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제13회 사랑의 김치 페어(Fair)' 김장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를 비롯해 65개 금융투자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최고경영자(CEO) 40명, 직원 7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총 5만kg의 김치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금융투자회사가 후원하는 복지시설 150여곳에 전달했다.

'사랑의 김치 페어'는 소외된 이웃의 일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됐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오늘 행사가 작지만, 사회적 나눔에 기여하고 앞으로 결속해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손민지 기자 hand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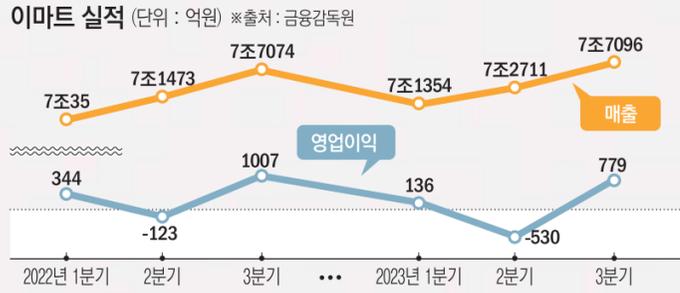
서유석(왼쪽 두 번째) 금투협회장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사랑의 김치 페어' 행사에서 김장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 “본업 회복에도 방심은 금물”... 수익성 강화 나선 이마트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줄었지만  
별도기준은 같은 기간 5% 올라  
‘본업 경쟁력 강화’ 효과 보이나  
쿠팡에 밀리며 수익성 개선 시급  
신규 출점·점포 리뉴얼로 쇄신

이마트가 올 3분기 ‘본업 경쟁력 회복’에 힘입어 실적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다만 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연결기준 실적이 뒷걸음치면서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4분기에는 신규 출점과 점포 리뉴얼을 통한 외형 성장은 물론 본업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 회복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의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7096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했다. 당기순이익은 2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8% 감소하며 손실 폭이 커졌다. 연결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51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희망적인 것은 본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 부문(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성장했다. 이마트의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5%(52억 원) 증가한 1102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매출은 4조4386억 원으로 2.2%

감소했다. ‘노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전문점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 재편 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매출은 2786억 원, 영업이익은 9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84.3% 증가한 수치다. 할인점 부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1%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물가 안정 기여 연중 프로젝트 ‘더 리미티드’ 등 고객 관점의 상품 혁신과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점포 리뉴얼, 수익성 개선 노력에 따른 비용 효

율화 등이 본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쿠팡에 밀리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쿠팡은 3분기 매출액이 8조1028억 원(분기 평균 환율 1319.39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1146억 원을 기록했다. 이마트를 가뿐히 제쳤다.

이마트는 향후 신규 출점과 점포 리뉴얼 효과로 실적 반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신규 출점과 리뉴

얼 등을 통한 외형 성장을 도모하고 수익성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이마트24·이마트에브리데이 3사의 기능을 통합, 매입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3사 윈(One) 대표 체제’의 시너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 9월 취임한 한채양 이마트 대표도 최근 이마트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회사의 모든 물적·인적 자원을 이마트 본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출점과 기존점 리뉴얼 등을 통한 외형 성장과 동시에 경영 효율성을 높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3분기에는 고객 관점에서의 상품 혁신과 점포 리뉴얼이 큰 폭의 객수 신장으로 이어지는 등 본업 경쟁력이 회복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며 “향후 오프라인 3사의 기능 통합을 본격화하고 구조적 쇄신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 노브랜드 '2900원 짜장버거' 나왔다

신세계푸드는 신세계그룹 20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2023 쓱데이'를 기념해 노브랜드 버거에서 역대급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 '짜장버거'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노브랜드 짜장버거는 신세계푸드가 직접 개발한 짜장소스에 타 브랜드보다 20% 두툽한 고기 패티, 양파, 양상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먹거리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품 2900원, 세트 4900원으로 출시됐다. 사진제공 신세계푸드

## 롯데 웃고, 진로 울었다 연말 '맥주' 대격돌 예고

### 3분기 엇갈린 실적

진로, 마케팅비에 영업이익 감소  
'새로' 연매출 1000억원 업고  
롯데, 21일 '크러시' 공식 출시  
기존 강자 '켈리' 제칠까 주목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이하 롯데주류)과 하이트진로가 3분기 실적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주류는 소주 신제품 '새로'의 선전 덕에 호실적을 낸 반면, 하이트진로는 원재료·마케팅 비용 상승 탓에 우울한 3분기를 보냈다. 이 가운데 롯데주류가 이달 클라우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연말에는 맥주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2011억 원, 영업이익 14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무려 110.2% 증가했다. 소주가 호실적을 이끌었다. 이 기간 소주 매출액은 8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다. 소주 매출 신장은 출시 1주년을 맞은 제로슈거 소주 '새로'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이 927억 원으로, 연간 1000억 원 돌파가 유력하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 6544억 원, 영업이익 43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23.7% 감소했다. 실적 부진은 롯데주류 크러시·하이트진로 켈리▶

주정과 병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과 신규제품 광고 판촉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3분기까지 7424억 원의 판매관리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6415억 원) 대비 15.7% 증가한 규모다. 공격적인 마케팅 덕에 '테라'와 4월 출시한 신제품 '켈리' 판매량은 무난했다. 하이트진로 3분기 맥주 매출은 23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소주(참이슬)는 롯데주류 새로 등에 자리를 빼앗겨 매출액이 4.1% 줄었다.

맥주비수기인 4분기에 하이트진로의 테라·켈리 마케팅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새로로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롯데주류가 21일 클라우드 신제품 '크러시'를 공식 출시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한 롯데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 대신 크러시가 시장 판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클라우드의 국내 점유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맥주 브랜드 점유율은 오비맥주 카스가 38.9%로 1위다. 이어 하이트진로의 테라 (13.37%), 플라이트 (6.24%) 순이다. 클라우드 4.61%다. 신제품 켈리는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기존 강자인 카스, 테라에 비해선 입지가 약하다. 이에 롯데주류는 당장 켈리부터 제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kij42@



## 오아시스, 올해도 흑자 눈앞... 신사업은 아직 안갯속

3분기 영업이익 1년새 11배 뛰었지만  
IPO 간담회에서 연내 시행 약속한  
퀵커머스·무인 결제 등 '불투명'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3분기 외·내형 성장을 이루며 12년 연속 흑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올해 시행하겠다고던 퀵커머스, 무인결제 등 신사업은 오리무중이다. 기업공개(IPO) 철회에 이어 신사업까지 연기하면서 신뢰도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아시스의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47% 폭등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3% 오른 49억 원이었다. 총정권 새벽배송 권역을 세종으로 확대한 효과로 신규 고객 유입과 배송빈도가 늘어난 게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3분기 회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또 재고폐기율 0%대, 피킹·패킹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합포장을 통한 포

장비 절감을 통해 비용도 줄였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제휴사업을 통한 영역 확대가 규모의 경제로 이어지며 효율적인 경영을 했다”면서 “3분기 객단가가 소폭 상승했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쿠폰의 양을 줄이지 않고도 영업이익을 늘려가는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설립한 오아시스는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12년 연속 흑자 행진이 무난해 보인다.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3519억 원, 영업이익은 106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9%, 37.7% 신장했다.

이같은 외·내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속제도 많다. 올해 초 안준형 오아시스마켓 대표가 IPO 기자회견담회에서 연내 시행을 약속한 신사업이 대표 과제다. 그는 라이브 커머스, 퀵커머스, 오프라인 무인 자동화 매장, 자체 보유 물류 기술의 상용화 서비스, PG사업 진출 등을 꼽았다.

특히 오아시스는 연결중속회사 브이를 통해 퀵커머스 사업 진출을 공언했다. 오프라인 매장과 소규모 물류센터(MFC)를 결합, 서울 도심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 지역에 퀵서비스를 연내 제공하는 게 목

표였다. 이를 위해 오아시스는 관계사 실크로드를 통해 메쉬코리아가 보유한 브이 지분 전량을 인수했지만 이후 소식은 잠잠하다. 업계는 퀵커머스 사업의 수익성 문제에 부딪혔다고 본다.

오아시스의 또 다른 신사업은 오프라인 무인결제 매장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제품 인식 기술력을 접목한 운영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구매 상품을 계산대에 올리면 자동인식해 계산하는 식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경쟁사와 차별화 포인트로 꼽힌다. 하지만 이 역시 올해 순차적 도입 목표를 잡고, 내년으로 연기했다. 오아시스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퀵커머스는 준비가 덜 돼, 연내 서비스가 어렵고 퀵커머스보다 무인결제 솔루션을 더 중요하게 준비 중”이라며 “무인결제 솔루션은 당초 이달 공개하려 했으나, 속도 개선을 보완해 내년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

# 집단커닝·성적표 사전유출… ‘물·불 수능’ 논란은 진행형

## 31년째 맞는 수능 잔혹사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다.

올해로 31년째를 맞는 수능의 역사는 평탄치만은 않다. 대규모 조직적 집단 커닝으로 인한 성적무효 사건, 시험 종료 2분 일찍 울린 종, 성적표 사전 유출 등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시험인 만큼 사건사고도 많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수능 당일까지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그간 수능 시험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를 되돌아봤다.

◇대규모 조직적 커닝 사건=2005학년도 수능에선 조직적 대규모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리자에게 정답을 전송한 후, 시험장에 입실해 있는 ‘고객’들에게 정답을 전송하는 수법이었다. ‘고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 정답 구매 후 폰으로 전달, 314명 성적 무효

‘후임병에 대리 응시’ 군인 실형 ‘2분 일찍 울린 종’ 국가가 배상

공정·형평성 논쟁은 매년 반복

한 과목당 50만~70만 원을 주고 정답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수능 응시생 총 314명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이를 계기로 시험장에 전자기기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한 고사실당 수용가능 인원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포항 지진에 일주일 연기=2018학년도 수능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처음으로 시험이 연기되는 해로 기록됐다. 하루 전에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입시 일정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대학별 면접 및 논술 고사 대비



2004년 치러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이 사용한 송신용 휴대전화. 뚜껑이 없어 정답 신호를 보내기 좋은 점을 이용했다. 연합뉴스

롯해 수능 성적 통지일,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것이 연기됐다. 전국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버렸던 문제집을 다시 찾느라 분주했고, 학원엔 버렸던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시 찾아가려는 수험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몇몇 학원들은 ‘7일 파이널 특강’ 같은 문구로 일주일 특강 광고를 내는 충격을 받기도 했다.

◇후임병이 ‘대리 수능’=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2020학년도 수능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 했다. 당시 수험표에는 현역 병사가 아닌 선임병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시험 감독관의 수험생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에 다녔던 선임병은 이렇게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 실제 한 대학에 합격했다. 당시 현역 병사는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능 성적 사전 유출=2020학년도 수능 성적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이 사전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9년 12월 1일 3시간가량 수험생 300여 명이 평가원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성적표를 사전 조회하고 출력했다. 평가원은 사과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의 신뢰를 해했다는 비판이 나

왔다. 나아가 당시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알게 되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2분 일찍 울린 종료종=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 한 수능 시험장에서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번째 선택 과목 시험 도중,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보다 2~3분 일찍 울렸다. 일부 학생들은 시험 종료 시각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종료 종이 울렸다고 항의했으나, 감독관은 시험지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독관들은 시험 종료 종이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2분간 문제를 더 풀게 했다. 시험지를 재배부한 뒤 다시 거두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文사저 경호 구역 확대에 극우 소송… 法 “위법 아냐”

“폭력적 행위로 경호 어려워”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한 정부의 방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극우 유튜브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의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지하는 등 안전활동 구역을 지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경호 구역 지정으로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다고거나 이동·의사표현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집회와 시위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또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 주변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행위와 소속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의 갈등으로 인해 경호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확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저 300m 이내라는 확대된 경호 범위가 “현장 특성이나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지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경호 범위를 기존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까지 확대했다. 박꽃 기자 pgot@



민대 방역 나선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구로구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찾아 철도차량 방역작업 관계자들과 민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학교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대법, 원심 파기·환송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8년 4월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2급인 피해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고 수회 때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특수교육 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도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구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백익경 기자 ekpark@

## 자생형 간첩단 ‘자통’, 민노총에 침투해 조직 운영

北 적화통일 노선 추종, 집단결성 SNS·유튜브 통해 여론조작 시도 檢, 창원간첩단 연계해 후속 수사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 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 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도 이들과 관련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자통 수사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별도 조직과 관련해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북 보고문에 전농 총남도연맹 등 충청 지역 농민단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의 존재는 3월 검찰이 창원간첩단 사건을 처리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자통은 북한과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민중전위를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로 구속 기소했다.

조직 구성원 중 일부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 외에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총책으로 알려진 황모 씨(구속 기소)는 2016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10

년을 초과해 이적단체가 아닌 범죄단체 활동으로만 기소한 이유다.

자통은 북한에서 넘어온 남파간첩이 아닌 자생조직이다. 국내에서는 합법적 시민단체를 외곽기구로 삼았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비공개 자통을 두고 총책을 정점으로 ‘단선연계 복선포치’(상하 조직원만 일대일로 접촉하고 하위 조직원끼리는 서로 알 수 없는 형태)를 기본 형태로 운영했다.

기밀을 통지하는 것이 과거 간첩의 대남공작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조금 다르다. 자통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20~30대의 성향과 가치관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로 인해 검찰에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수진 기자 abc123@

# “포퓰리즘 OUT”... 서울시 ‘현금성 복지’ 사전협의 의무화

##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 추진

25개 자치구 공동선언 후속조치  
시-구청장 협의로 재정낭비 차단  
취약계층 등 예산 집행 효율성 ↑



오세훈(앞줄 왼쪽 여섯 번째) 서울시장과 25개구 구청장들이 '건전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서울시

13년 만에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을 축소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추진한다. 이는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실현하기 전 서울시와 구청장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14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로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구

구청장들은 건전재정에 대해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며 '건전재정 공동 선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선언은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약화에 따른 세수 결손과 저출생·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의 영향을 받아 13년 만에 축소됐다.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게 핵심이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이어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통해 자치구 간 자정 작용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방안은 이달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시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 각 자치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수당 등 선심성·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받는 정책들이 추진돼왔다.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금천구와 관악구는 한 사람당 5만 원씩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지급됐다 폐지된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도 마찬가지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제동을 걸었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에 태스크포스(TF)도 꾸리면서 단계별로 건전재정에 대한 합의점을 이뤄가고 있다"라며 "우선적으로 '전 구민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향후 특정 계층 등 경제장치를 후속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시와 25개 자치구가 구성한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TF는 매월 회의를 개최해 시·자치구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채빈 기자 chaebi@

## 맨발로 '흙길' 걷고... 건강은 '꽃길' 걷는 동작구민

상도·대방공원 내 황톳길 조성  
내년 상반기까지 6곳 이상 추가



박일하(오른쪽) 동작구청장이 대방공원에서 주민 40여 명과 함께 황톳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 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상도공원과 대방공원 내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황톳길이 조성된 곳은 △상도공원(상도동 533-3) 유아숲체험장 △대방공원(대방동 520) 내 산책로다. 황톳길은 원지반 위에 황토를 포설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세족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했다.

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황톳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루 두 번 낙엽 청소를 시행하고, 황토 유실 등 발생 시 수시로 보충한다. 이달 말에는 현충공원 내

유아숲체험장에도 황톳길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작반려견공원, 노들나무공원 등 기존 산책로와 연계한 맨발 황톳길을 6곳 이상 추가로 조성한다. 구민 누구나 집 앞 공원에서 맨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힐링을 책임지는 맨발 산책로를 관내 공원 곳곳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 올겨울 폭설 걱정 없는 강동구민

스마트 제설함 등 시스템 본격 가동

강동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능형 제설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3개 반으로 구성된 제설 재난안전본부 24시간 운영한다. 대책본부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을 확인하면서 원격으로 액상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 제설함'을 천동보도육교, 천호사거리 교차로, 길동 생태공원 앞 교차로 등 12개소에 비치했다. '스마트 제설함'은 제설 자재가 부족한 경

우, 내부 센서가 이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알린다. 구는 제설 자재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해 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차량이 상습결빙구간을 지날 경우 주의할 수 있도록 자동 경고 시스템도 설치했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장비도 새롭게 마련했다. 관내 모든 동에서 보도용 소형 제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확대 배치했고, 대설주의보(적설량 5cm) 이상의 강설이 내리면 용역 인력을 동원해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전환경로로 열선 시스템도 9개소(1965m)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jyoung2@

**BRAVO My Life**  
11월 15일  
11월 15일  
11월 15일

세우 최정준  
다시 돌아보는  
중년의 의미

BRAND SPECIAL  
노후 거주 새로운 표준  
실버타운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 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 창공**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IBK BOX**

# “일상 속 나눔, 작은 시작... 우리 사회에 퍼지길”

### 삼성전자, 하반기 나눔의날 행사

키오스크 기부·헌혈·봉사 등 2주동안 임직원 11만명 참여 ‘나눔워크’ 캠페인 활동 결산 적십자사에 헌혈버스도 기부



조남선(왼쪽부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김용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이 14일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삼성 나눔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4일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5월말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11월 1일부터 2주간 전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워크’를 결산하고, 일상 속 나눔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나눔워크 기간 지역사회 대면봉사와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기부, 헌혈에는 삼성전자 등 관계사 23곳에서 임직원 총 10만7000명(중복 인원 제외)이 동참했다.

이번 나눔의 날 행사에는 삼성 임직원들과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의 가족,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관리용호

부부장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나눔워크 기간 동안 봉사와 기부, 헌혈에 참여한 삼성 임직원들의 노력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나눔키오스크 기부금 전달식 △삼성 임원들의 기부금으로 제작한 헌혈버스 전달식 △우수 헌혈 참여자에 대한 유공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나눔키오스크 기부를 받은 김지영(가명·17세) 양의 보호자는 “임직원들의 도움은 지영이의 재활 치료와 지영이 동생의 자립 준비에 큰 힘이 된다”며 “각각 4살, 2살 때 우리 양육시설에 맡겨진 지영이 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은 하체가 자라지 않는 희귀 유전 질환인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다. 전재원(가명·6세) 군의 아버지는 “아이의 병 때문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비가 많았지만 삼성 임직원들의 후원이 저희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전 군은 한 살 무렵 식사 중 기도가 막혀 뇌병변 장애를 안게 됐다. 삼성은 이날 헌혈버스 4대를 대한적십

자사에 기부했다. 삼성 임원들은 2022년 1월 특별격려금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100억여원을 모금, 매년 4대씩 헌혈버스를 기증하고 있다. 총 40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행사에서 조상연 삼성전자 DS부문 프로에게 명예장(누적 헌혈 100회 이상자에게 수여)을 주는 등 총 4명에게 헌혈 유공패를 수여했다.

김현숙 장관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한 삼성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정부도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이나 나눔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인상깊다”며 “‘나눔워크’를 계기로 삼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과 상생협력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경제현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전영목 삼성생명 사장 등 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나눔워크 기간 중 임직원들과 봉사 활동을 함께 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코오롱FnC ‘패션 임팩트 챌린지’ 장애인인류 제안 셀렉터블팀 대상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은 전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패션 솔루션을 토론하는 제1회 ‘패션 임팩트 챌린지(Fashion Impact Challenge)’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취향을 존중하는 코오롱FnC만의 ESG패션 솔루션’을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대한민국 대학(원)생이 약 100명 참가했다. 대상은 ‘셀렉터블(Selectable)’팀이 수상했다. 셀렉터블팀은 자체 장애인의 입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댑티브’ 옵션을 의류에 추가하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대상 1팀은 400만 원 상금과 코오롱FnC 대표이사장 상을 수여 받았다. 문현호 기자 m2h@

### HLB바이오, 김종호 부사장 영입

유효성 비임상 CRO 기업HLB바이오시스템은 CRO사업총괄로김종호<사진>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사장은 서울대에서 수의학과 수의생화학을 전공했으며, 한양대에서 약학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제일제당 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SK바이오팜 기획팀을 거쳐, 종근당 연구기획실장, 보령제약개발그룹장, 아이젠사이언스 부사장 등을 역임한 제약바이오 전문가다. 유혜은 기자 euna@



# “7년 걸린 ‘작별하지 않는다’... 앞으로론 밝은 소설 쓰고 싶어”

‘메디치 외국문학상’ 받은 한강 남은 자들의 치유하는 방식... 5·18 ‘소년은 온다’ 이어 4·3 더는 역사적 사건 소설 안 쓸 듯 겨울에서 봄, 생명 얘기하려 해

출간됐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불가능한 작별’이다. 소설은 ‘경하’와 ‘인선’, ‘정심’이라는 세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 작가는 세 여성의 발걸음을 통해 비극의 역사로 희생된 자들을 애도하고, 남은 자들을 치유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다.



‘다’를 2014년에 완성했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2021년에 완성했다. 두 소설은 하나의 짝인 셈인데, 이제 더는 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작가는 “앞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건 ‘생명에 대한 소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나서 일회적인 생명을 원하는 원치 않은 선물 받았다. 인젠가 (이 생명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벨상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질문에 대해서 한 작가는 “이런 질문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나는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나를 위해서 쓴다는 뜻은 아닌데, 그냥 소설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는 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사진 연합뉴스

“소설을 완성하는 데 7년이 걸렸다. 2014년 여름에 시작해 2021년 4월 말에 완성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소설이다.” 14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2023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무척 기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작가에게 상상의 기쁨을 안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출판사 그라세(Grasset)에서 ‘Impossibles adieux’라는 제목으로

한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은 애도를 끝내지 않고,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표현한다”라며 “끝내 작별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의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현지 독자들의 반응에 관한 질문에 한 작가는 “소설이 감각적으로 느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로 내가 소설을 쓸 때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소설에서는 촉각이 중요한데 뜨겁고, 차갑고, 부드럽고, 아프고, 피가 흐르는 그런 촉각

적인 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작가는 ‘밝은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제 더는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쓰지 않을 것 같다”라며 “광주 5·18을 다룬 ‘소년은 온

### 농협은행 ‘제10회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9개사 시상



NH농협은행은 ‘2023 제10회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랑스런 농식품기업 상은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다. 전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종자생산 및 비료·농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제농 에스앤티 농업회사법인 등 9개 기업 대표가 수상자로 참석했다. 이 상은 농협은행과 거래 중인 전국 농식품기업 중 경영성과, 국산 농축산물 활용,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부문의 업적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농식품기업에 수여된다. 이석용<사진 오른쪽 다섯 번째> 농협

은행장은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계신 대표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농협은행 또한 농식품기업의 성장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사진제공 NH농협은행

### 하나금융, 여성 리더 육성 ‘하나 웨이브스 컨퍼런스’



하나금융그룹은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하나 웨이브스’의 지난 1년간 노력을 되돌아보고 그룹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실천을 다짐하는 ‘하나 웨이브스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하나금융 명동 사옥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7월 출범한 ‘하나 웨이브스 3기’ 28명의 수료생과 함께 하나 웨이브스를 통해 배출된 총 92명의 여성 리더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와 현상의 변화,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함영주<사진 둘째 줄 가운데>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3기 수료생과 컨퍼런스에 참석해 하나 웨이브스 참석자들을 격려하

며 “그룹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고객”이라고 강조하며 “리더의 역량 증가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인성으로, 고객·조직 구성원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그룹의 핵심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사진제공 하나금융

- ▲이달주 씨 별세, 이상옥·상헌(썬아 라원 대표)·상물 씨 모친상, 이명아·임분선·양명희 씨 시모상 = 14일, 대구 수성구 모래아장레식장 103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53-801-9999
- ▲김민식(전 대구 MBC 사장) 씨 별세, 남순우 씨 남편상, 김학균(퀀텀벤처스코리아 대표이사)·정민 씨 부친상, 김은정 씨 시부상, 김성중(LG전자 부장) 씨 장인상 = 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2258-5940
- ▲문형남(전 서울아산병원 소아과 교수, 강릉아산병원장) 씨 별세, 이상옥 씨 남편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17일 오전 6시 40분, 02-3010-2000

마감 후

“올해는 몇달 안남았는데도 뭐, 중요한 건 내년이죠.”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던 KDI가 끝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던(올해 1.5%→1.4%) 날, 한국은행도 추가 하향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경제분야 인사가 한 말이다.

이달 30일 한국은행이 숫자(경제전망)를 발표한다. 앞서 8월에 내놓은 숫자는 올해 성장률 1.4%, 내년 2.2%였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았다. 한국은행 전망이 국제기관 예측과 맞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당시 IMF가 발표한 내년 성장률 2.2%는 7월 전망치였던 2.4%에서 낮춘 것이었다.

다수의 민간 연구기관은 경제성장률을 올해 1.3%, 내년 2.1%로 예상하고



서지희 정치경제부 차장

의 규모를 막론하고 중앙은행이 국내 경제 체력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내년 기업 경영 전략의 밀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숫자에는 거품이 있으면 안 된다. 경제 현실을 직시한 분석이 지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변의 입김과 개입은 없어야 한다. 하물며 누구나 즐겨 먹는, 시중에 판매하는 핫도그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한 봉지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이는 꿈수(슈링크플레이션 현상)를 두고 ‘물가에는 지장이 없다’는 달콤한 해석을 하게끔 조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유가였다. 애초 예상했던 올해 평균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인 배럴당 82달러, 내년 83달러

韓銀 ‘숫자’에 쏠릴 시장의 관심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숫자는 더 박하다.

S&P는 1.1%, 피치는 자칫 ‘0%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1.0%를 매겼다. 0%대 소수점 둘째 자리를 반올림해 ‘1.0%’인지, 아니면 액면 그대로 1.0%라는 것인지 리포트(GDP growth to slow to 1.0% in 2023)에 상세 서술하진 않았다. 어찌됐든 ‘1% 턱걸이’를 전망한 것이다.

한국은행 차례가 돌아왔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수준으로 전망치를 낮출지 관심사다. 특히 내년 숫자도 꺼내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숫자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천차만별이다. 총재의 한마디에 채권 금리가 들쭉거리다가도, 한국은행의 숫자는 정부나 국책연구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냉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심드렁해도 중앙은행 발표를 아예 모르쇠할 수는 없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영세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업

(상반기 84달러·하반기 82달러)를 웃돌면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흐른 현재 국제유가는 오히려 배럴당 70달러대 후반-80달러대 초반 수준이다. 확산 시 배럴당 100달러는 물론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시나리오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1% 턱걸이’ 전망을 했던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의 부정적 요인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GDP 대비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시장이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약화로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낮아져 금융부문이 곤경에 빠질 경우 등을 꼽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한 경제지표 악화도 부정적 요인으로 짚었다.

2023년 말, 경제 현실을 직시한 한국은행의 숫자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린다.

jhsseo@

4차 산업혁명 완성할 우주산업

1차부터 3차까지의 산업혁명은 각각 생산 기계화, 대량 생산, 생산 자동화로 특징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계학습,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자율 로봇, 재료과학, 나노기술, 양자 컴퓨팅 및 증강-가상현실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에 속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및 프로세스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생태계 변화에 산업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초연결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은 대부분 지상에서의 기술 및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많은 뉴스페이스 기업이 글로벌 우주산업 및 관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오늘날 우주산업의 응용 서비스는 미래 혁신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점점 더 빠른 연결을 제공하는 위성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지식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 처리 능력의 발전, 내장된 장치의 상호 연결은 필연적으로 위성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 관리 및 거버넌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사물 인터넷은 사람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연결된 장치를 의미한다.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연결성만이 위성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혁신기술은 새로운 시장과 성장 기회를 창출하도록 다양한 분야와 위성산업을 통합하는 교류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위성정보서비스 산업에 인공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前 한국항공대 교수



지능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자율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경제 환경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 접근하는 장벽을 낮춰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위성산업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파괴적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주궤도에 현재까지 증가하는 관측위성은 광대한 양의 영상데이터를

구현하여 다양한 모사를 통해 검증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우주비행체, 위성 제조 및 서비스에도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화된 우주비행체나 위성모델을 생성하여 실제의 우주비행체 및 위성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빅 데이터 도움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위성체 및 발사체 제작 단가를 낮추고 새로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며, 이는 많은 값싼 재료를 적용함으로써 3D 디지털 모델로부터 물리적 형상을 구현한다. 이 3D 프린팅은 저비용으로 로켓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차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켓랩 사는 소형 발사체인 일렉트론 로켓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며, 신속한 제작 사이클을 위해 24시간 내에 복제가 가능하다. 웰러티브스페이스 사는 중형 발사체를 제조하기 위해 대규모 3D 프린팅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지상에서의 제작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메이드인스페이스 사는 2014년 국제우주정거장에 3D 프린터를 보내 버클과 렌치 등 소형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능에 의존하는 뉴스페이스를 포함하는 우주산업은 상호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새로운 효율성과 통찰력으로 우주산업 부문을 변화시켰다.

머지않아 우주에 대한 지식을 더욱 확장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속도와 규모를 확장하여 핵심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성기술로 전세계 연결 ‘혁신선도’ 다양한 분야 통합... 교류의 장 열어 상호 의존해 미래 산업변화 이끌어

수집하고 지구로 송신함으로써, 기업은 데이터를 처리·저장 및 활용하는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성운용회사 플래닛의 초소형 군집위성은 매일 100만 장 이상의 영상(7~10테라바이트의 데이터)을 수집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수집된 영상을 처리·저장 및 공급한다.

플래닛, 디지털글로브 등 다수의 위성운용회사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범위의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된다.

기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물체를

1년을 지새운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김이현  
사회경제부 기자



“한계만 보여줬지 한 게 없다.” 최근 만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시 1호 공약으로 탄생한 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는 출범하는 순간부터 ‘무용론’이 지겹게 따라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지’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었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불렸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어느덧 내년 1월이면 끝난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 세발자전거의 세 바퀴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인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물모델인 영국 ‘SF0’ (중대범죄수사청) 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주요 사건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인적·물적 탕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공수처 2기가 들어선다. 이 외중에 김 처장과 여론국 공수처 차장이 후임자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문자가 포착됐다.

두 사람 모두 추천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2기 공수처는 수사 역량을 올릴 방안 마련에만 몰두했으면 한다.

spes@

이투데이, 말투데이

☆ 요한 카스파라 바터 명언 “모든 것을 좋게만 보는 자도,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는 자도 믿지 말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자는 더더욱 믿지 마라.” 스위스의 시인, 신학자다. 관상학의 창시자로 ‘관상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인간의 지혜와 선을 평가하는 관상학적 요소들’이란 일련의 글로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킨 그는 “미덕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악덕은 추악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741~1801.

☆ 고사성어 / 신시경종(愼始敬終) 임금의 마음가짐은 시작함을 신중하게 하고 끝마침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당나라 명신 위징(魏徵)이 당 태종에게 열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내용을 간언하는 상소에 “처음에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능히 끝을 잘 마치는 자는 거의 없습니

다”라며 “나태하고 게을러질까 두려울 때는 반드시 일의 시작을 신중히 하고 일의 끝을 잘 삼가야 한다[愼始而敬終]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출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시사상식 / 관계인구 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조사 결과는 좁은 의미의 관계인구는 도시민의 19.3%, 넓은 의미의 관계인구는 35.3%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농촌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 다수가 앞으로 농촌을 지속해서 방문하거나 활동을 유지 또는 확대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의 이주와 정착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므로 한걸음씩 나아가기 위한 점진적 접근법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에너지 수출, '통상'이 마중물 돼야

최근 정부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 톱3 품목을 선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에너지 파트너십,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나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원전 협력 등 G2G(정부 간) 협력 강화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지금까지 한국 산업의 성장을 보조하며, 에너지안보와 공급 안정이 주어진 지상과제였는데 왜 수출 동력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고민하게 된 것일까? 수출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한국 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 언제나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이나 통상압력이 있었고, 이를 기회삼아 성장해왔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통상전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기회를 쉽게 꺾이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삼성 반도체, SK하이닉스가 당시 글로벌 반도체 무대에서 단역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때였으니 반도체 통상이야말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대로 추락한 한국 잠재성장률 새 성장동력에 에너지산업 '낙점' 기업·정부, 통상과제 머리 맞대길

이렇듯 한국 산업의 눈부신 발전 배경에는 에너지 동력의 놀라운 배터묵과 더불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통상 보호막이 독특히 제 역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우리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이라는 산업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수출동력이나 글로벌 진출이라는 에너지의 익숙지 않은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일까?

한국 산업의 눈부신 성장에는 끊임없이 진화해 나간 산업의 다이나믹한 성장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 산업의 현실은 철강, 반도체 및 자동차산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성장동력축으로 기대되는 바이오나 AI 등 소위 4차산업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제는 1% 수준으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 시론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



새로운 성장동력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시대적 도전에 대한 응전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 성장동력 축의 하나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원전(SMR),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산업에서의 글로벌시장 진출과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에너지 수출 동력화와 글로벌시장 기회 창출을 위해 에너지산업통상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시각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 산업의 성장사에 산업통상의 든든한 원군이 있었듯이 에너지글로벌 전략에도 에너지통상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절실하다.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현직 글로벌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선 에너지통상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하다.

에너지통상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는 점진적인 접근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청정수소 공급망이나 원전 등의 G2G 협력보다 훨씬 더 과감한 에너지통상 어젠다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철강과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의 기치하에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공리하였듯이 에너지 산업을 위한 통상진흥과 협상 어젠다 발굴을 위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이룩한 한국 산업에 걸맞은 산업통상의 보호막과 길잡이 역할을 이제는 에너지통상에서 새롭게 펼쳐보길 기대해 본다.

#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따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7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자 4개월 후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산업부는 특단의 인프라 대책까지 마련했다. 송배전망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산업부는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연내에 상향하라고 지시하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로 갑자기 올렸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2030년 실현할 수 있는 발전 목표를 최대 26.4%로 가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는 것으로 하고 무리한 숫자만 제시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따로 없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몽کت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산단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 비중이 커지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나 대통령비서관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해 입장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

고서'를 낼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무모한 국정과제의 정당성 포장을 위해 누더기 보고서로 국회까지 속였더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기분을 망각한 사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무법천지가 됐다. 태양광발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공무원 등의 위법 행태도 만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 사업을 노린 '가짜 농민'도 허다했다. 20년간 시장가인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비싼 고정가격을 주는 '한국형 발전 차액지원제도(FIT)'의 추가 혜택을 노린 것이다. 지난 7월 일몰된 한국형 FIT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이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르며 때 적립된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사기꾼들의 배만 불린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국가 에너지 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 정부의 무리수 탓에 뒷감당은 국민이 하고 있다. 당장 전기요금 사정이 그렇다. 재발 방지와 불법 이익 환수,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실책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 '불안'이 한국 경제를 쪼 먹고 있다

외환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격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 등을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 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경제개혁정책은 전형적 신자유주의 처방으로서 한국 경제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독과점적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관행,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기술경쟁력 부족, 사회보장 제도 미비 등의 취약점을 갖고 있어 신자유주의를 도입할 준비가 크게 부족했다.

이런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 즉, 시장중심 경제운영으로의 전환, 주주자본주의 도입과 금융시장의 개방,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부문 개혁 등이 추진됐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며 높아진 경제 불안정·불평등은 대다수 기업과 개인들의 불안을 낳았다. 특히, 경쟁의 패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의 불안이 깊어졌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마저 심화된 국제경쟁, 주주들의 수익성 제고 압박이 무서워 투자와 연구개발을 기피하게 되었다.

한편,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대기업만을 바라보며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젊은 부부들은 주거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

### 플러자

배재수  
송헌경제연구소  
국제경제부문 대표



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고, 노년층은 40%가량이 당장의 생계 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두려움은 경제주체들의 정신적 여유와 다양성,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을 낮추고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보다는 갈등적이고 근시안적인 행태를 확산한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 모험적 개인의 창업을 가로막고 결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춘다. 불안이 한국 경제를 쪼 먹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역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르쳐준다.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해 2차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룩한 수정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금융안정에 힘써야

수정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개혁 방안을 정리해보자.

우선, 태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노후연금, 건강보험 등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금리정책으로 증감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진입 규제를 축소해 공정경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외부 필자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진료실 풍경

##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죠"

"집사람이 저보고 우울증 같다고 정신과에 가보라는 거예요."

40대 후반의 남성은 확실히 기운 없고, 피곤해 보였다. 일식집을 10여 년째 운영 중인 그는,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해왔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일하기가 싫어지고, 진상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창업 초부터 같이 동고동락하던 주방장을 심하게 나무라서 그가 떠난 뒤로 더욱 의욕이 없어졌다. 급기야 지난 달부터 주중에 하루, 가계를 쉬기로 하였다. 그런데, 쉬는 날에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전형적인 우울증이군... 인지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겠어.' 면담을 기계적으로 이어나갔다. "요새 입맛이 당겨서 굳건질이 늘었는데, 몸무게는 오히려 줄었어요." 혹시? 나는 속사포처럼 질문을 해 나갔다. "최근 소변량이 늘고, 목도 마르고, 물도 많이 먹나요? 부모님 중에 당뇨 앓으신 분이 있나요?" 그는 내 질문에 연신 고개를 끄덕여냈다. 즉시 혈당 검사를 해 보았

다. '287.' "당뇨병이 시작된 줄 모르고 계셨군요. 진료의뢰서를 써드릴 테니, 내과에 가서 즉시 치료를 받으세요."

수개월 후, 그가 다시 외래에 내원하였다. "덕분에 좋아졌어요. 치료 후 혈당이 안정되고 나서, 이전처럼 기운이 나고, 짜증, 안절부절 못하던 증상도 사라졌어요." "우리 몸과 마음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이지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밝아진 그의 안색을 바라보며, 나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였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빨리 면담을 끝내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감기에 걸렸는지 열이 나고 오한이 들었기 때문이다. '해열제를 먹어야 겠는 걸. 환자분들이 원장이 초심을 잃었다고 오해하겠어.'

나가는 그와 역화시중의 미소를 주고받는다. 느끼는 받으며, 급히 해열제를 찾았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유배날리스.

최영훈 일산연세마음상담의원 원장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국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도전’의 힘을 믿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LG는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지난 29년의 여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2023 LG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도전의 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